SAMSUNG | intel

Galaxy Book Pro
Galaxy Book Pro 360

키워드 및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21년 PC모니터 빅데이터 트렌드 분석

MAY 2021

삼성전자 PC모니터 21년 B2B 웨비나

SAMSUNG | intel

Galaxy Book Pro 360 / Galaxy Book Pro는
11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기반의 아주 뛰어난 성능,
경험을 검증 받은 인텔 Evo 플랫폼을 탑재합니다.

본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1995-2021 Samsung.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B2B 고객분들께 제품 구매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삼성전자 영업담당님과 파트너 여러분께 비즈니스 역량 강화
및 마켓 인사이트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된,
키워드/ 데이터마이닝을 통한 트렌드 분석 자료입니다.

Galaxy Book Pro

Galaxy Book Pro 360

Market
Insight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빅데이터 트렌드 분석결과

이동성, 연결성, 편리성을 탑재한 **삼성전자** Connected PC 에 대한 제품 소구력이 **타사대비 호감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Galaxy Unpacked April 2021** 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광고/홍보를 통해서 사용자의 검색량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 정보에 대한 검색에서 구매로의 전환을 위해,
Galaxy Book Pro 및 **Galaxy Book Pro 360** 제품 기능을 기 제작된 영상 및 비주얼 수단을 활용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다양한 업무 환경 속에서 **매우 높은 비즈니스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을 더욱 집중하여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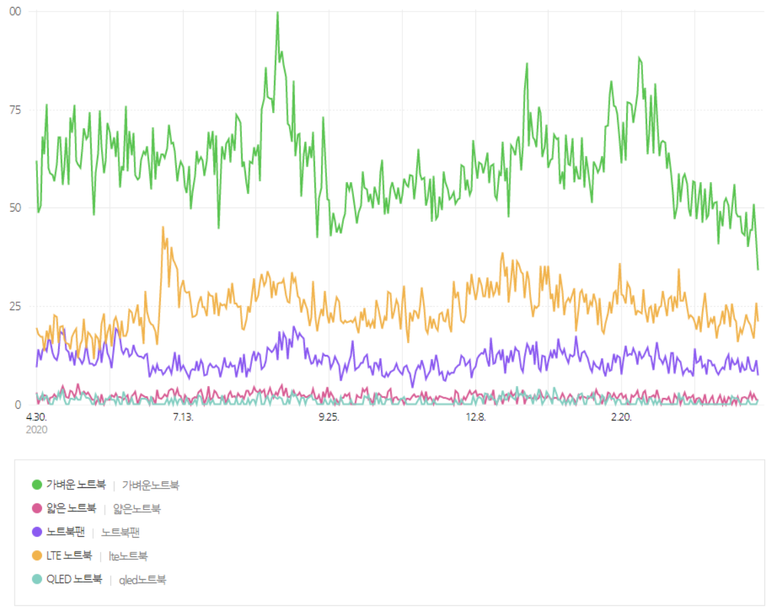
또한, 터치 및 이동성을 고려한 프리미엄급 노트북인 **Galaxy Book Pro 360** 에 대한 검색량이 **Galaxy Book Pro** 에 비해 월등히 높이 나타나고 있으나, 제품 가격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인한 **Galaxy Book Pro** 로의 **구매 전환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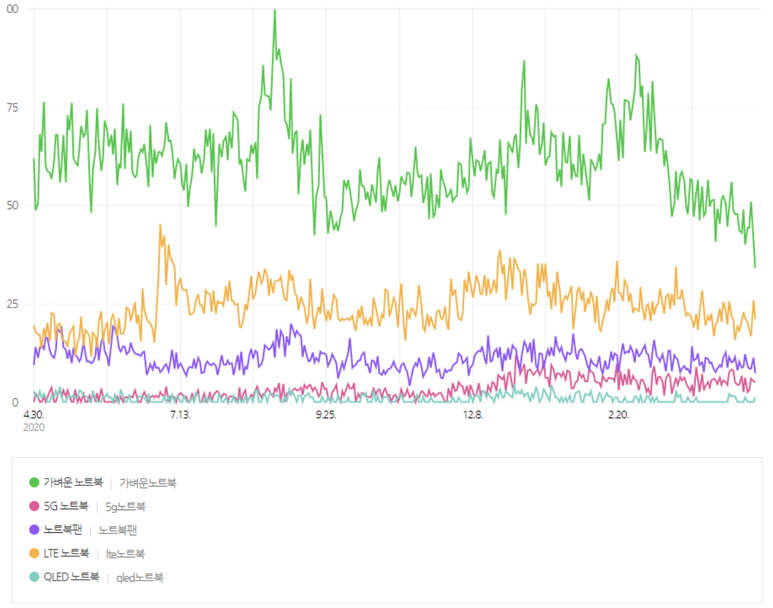
빅데이터 분석

https://datalab.naver.com/

키워드 검색량 분석

이동에 최적화된 가볍고, LTE노트북을 선호하며
노트북S팬에 대한 검색량이 다소 나타나고 있으므로,
Connected PC의 이동성과 연결성, 터치의 편리성을
강조하는 제품 소구력을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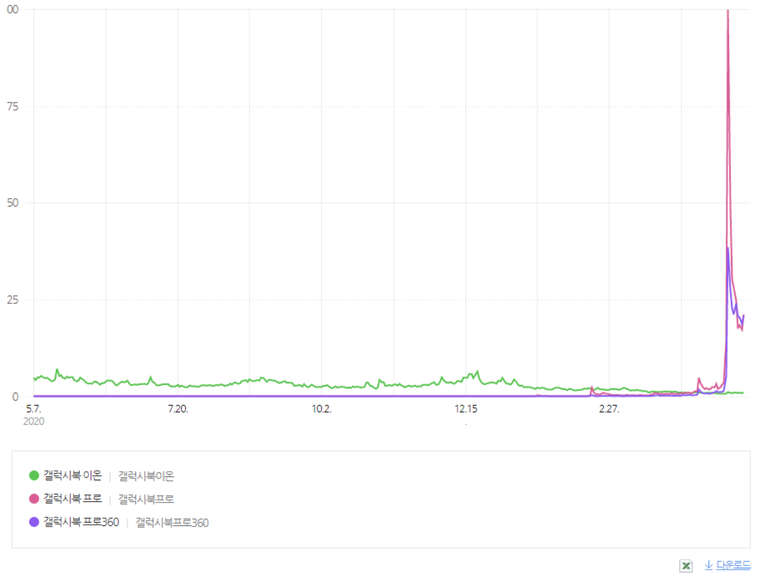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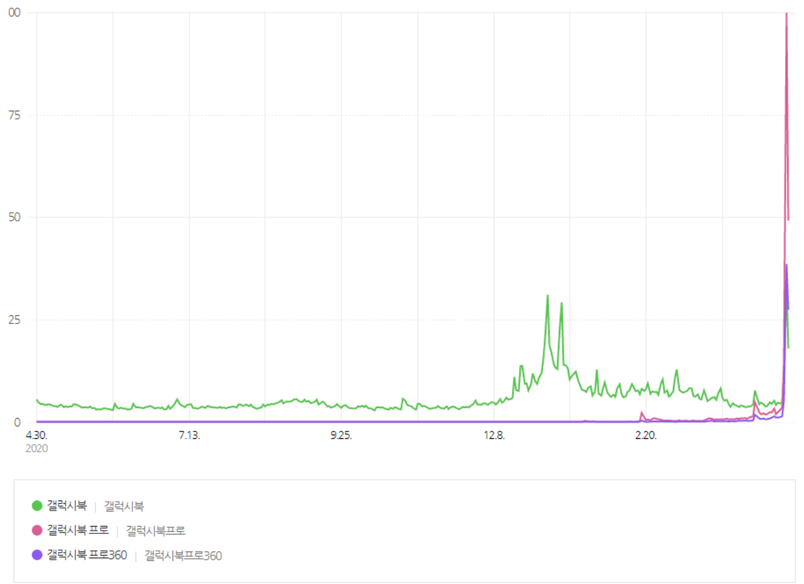
빅데이터 분석

https://datalab.naver.com/

키워드 검색량 분석

갤럭시북 이온에서 갤럭시북프로, 프로360 으로
검색량이 매우 가파르게 교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갤럭시북프로 및 프로360의 글로벌 언팩과 더불어
대대적인 광고/홍보/프로모션의 성공적인 전개 현상입니다.
이에 대국민적 관심을 받은 시점에서 지속적인 노출 및
비즈니스 활동으로 성과 도출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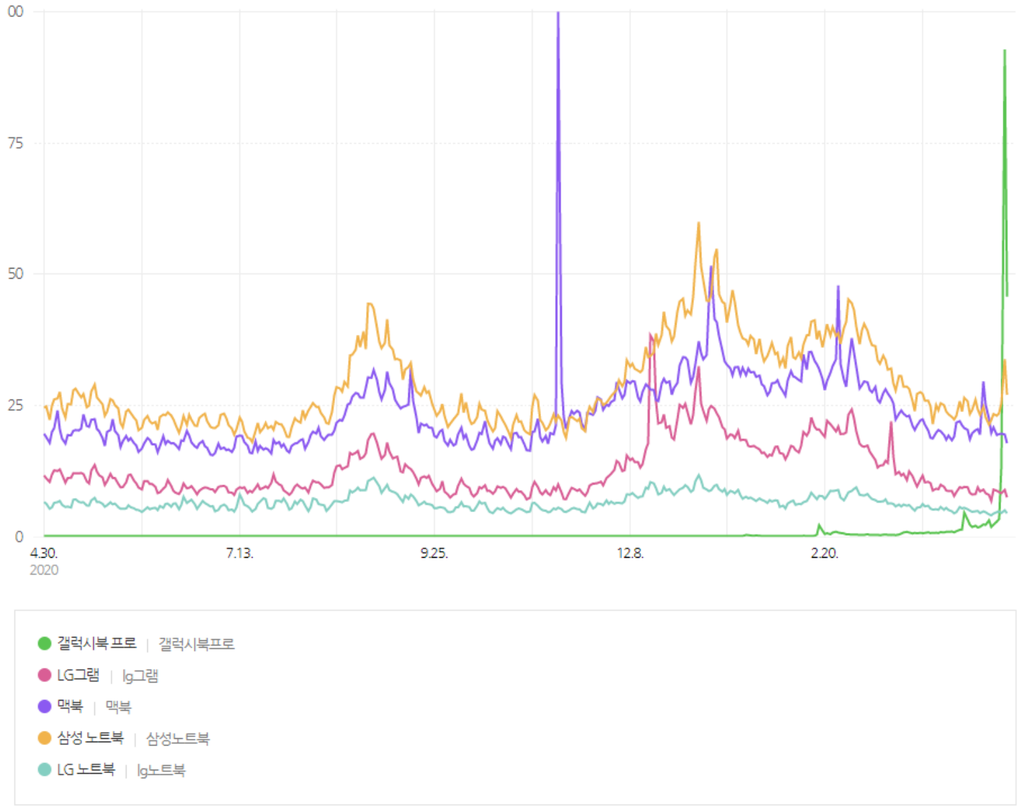


빅데이터 분석

https://datalab.naver.com/

키워드 검색량 분석

타사대비 삼성노트북에 대한 검색량이 지속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고,
갤럭시북프로 글로벌 언팩을 통해 급속한 검색량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삼성노트북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갤럭시북프로 시리즈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이 예상됩니다.



빅데이터 분석

https://blackkiwi.net/

검색 동향 분석

갤럭시북 프로360에 대한 검색량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동성과 연결성, 터치의 편리성이 결합된 프리미엄급 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관심이 매우 크다는 지표입니다. 단, 프로360에 대한 가격 검색량이
높으므로, 제품 가격에 대한 사용자의 진입장벽이 예상됩니다.
이는 사전예약에서는 갤럭시북 프로에 대한 검색량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기에
가격 진입장벽이 다소 낮은 갤럭시북 프로로의 구매전환이 예상됩니다.

연관 키워드 - 9개

키워드	월간 검색량 (PC)	월간 검색량 (Mobile)	월간 검색량 (전체)	블로그 총 발행량	철자 유사도
갤럭시북 프로 360	20,600	61,500	**82,100**	2,260	높음
삼성 갤럭시북 프로	2,250	5,850	**8,100**	10,000	높음
삼성 갤럭시북 프로 360	1,380	3,900	**5,280**	15,500	높음
갤럭시 북 프로 사전예약	570	1,240	**1,810**	23,900	높음
갤럭시 북 프로 360 사전예약	440	1,260	**1,700**	2,790	보통
갤럭시북 프로 360 13인치	450	1,000	**1,450**	3,970	보통
갤럭시북 프로 lte	470	890	**1,360**	1,950	높음
갤럭시 북 프로 360 가격	280	930	**1,210**	12,000	높음
갤럭시북 프로 360 파우치	130	280	**410**	4,090	높음

빅데이터 분석

https://blackkiwi.net/

검색 동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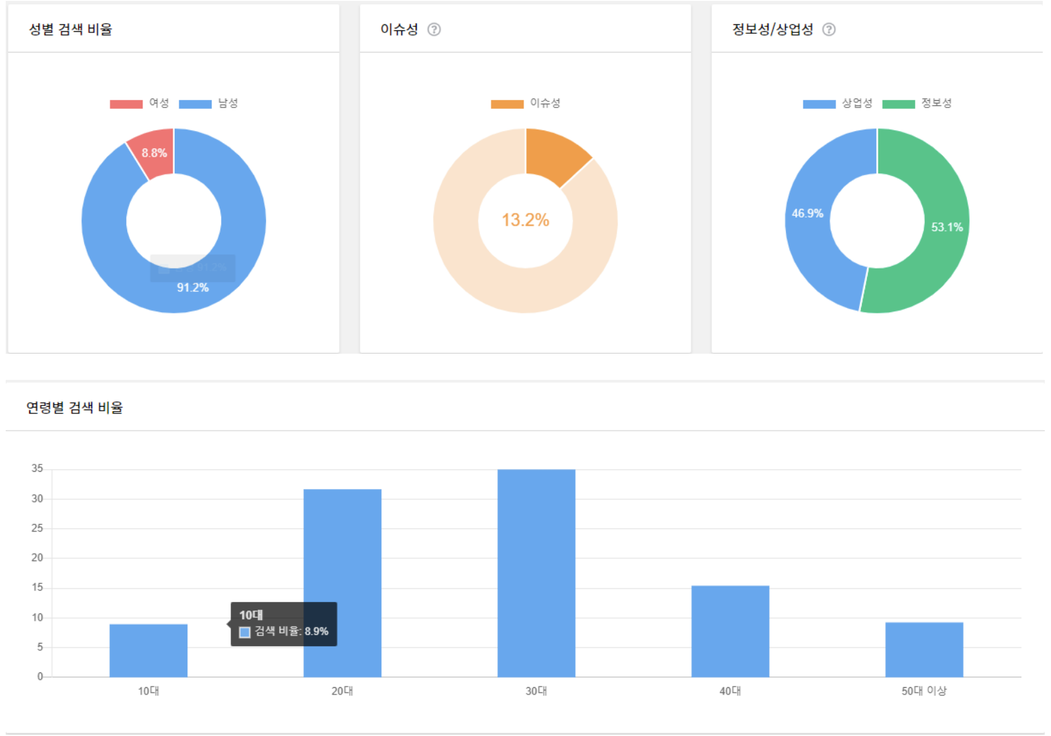
인플루언서를 통한 제품 관심도가 높아지고,
네이버쇼핑으로의 구매 전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30대 남성의 검색량이 많으며, 현재는 제품 정보 검색이 높으므로,
구매로의 전환을 더욱 늘리기 위한 제품 프로모션 전개가 필요합니다.

PC 섹션 배치 순서

1	파워링크	10개의 콘텐츠 노출 중
2	네이버쇼핑	8개의 콘텐츠 노출 중
3	VIEW	7개의 콘텐츠 노출 중
4	뉴스	4개의 콘텐츠 노출 중
5	카페 중고거래	6개의 콘텐츠 노출 중
6	이미지	
7	웹사이트	4개의 콘텐츠 노출 중
8	비즈사이트	5개의 콘텐츠 노출 중

Mobile 섹션 배치 순서

1	인플루언서	
2	VIEW	5개의 콘텐츠 노출 중
3	네이버쇼핑	9개의 콘텐츠 노출 중
4	뉴스	4개의 콘텐츠 노출 중
5	카페 중고거래	
6	이미지	
7	웹사이트	4개의 콘텐츠 노출 중
8	파워링크	3개의 콘텐츠 노출 중



빅데이터 분석

https://www.some.co.kr/

평판 요인 분석 | 갤럭시북프로

갤럭시북프로에 대한 긍정적인 감성연관어가 100%인 만큼
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기류에 편승하여, 제품의 기능을 매우 상세히 소구함으로써
매우 다양한 환경에서 개개인의 비즈니스 생산성에 매우 뛰어난
제품임을 어필함으로써 구매로의 전환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02

NEWS ANALYSIS

최신 기사를 통한 키워드 도출

키워드 도출

금융업
내구성
초슬림
휴대성
AMOLED Display
멀티태스크
세일즈업
생산성
재택근무
월드베스트 디자인
초경량
화상회의
출장
비즈니스 업무용

기사 검색

- ‘갤럭시 북’ 최신 기능, 기존 노트북에도 제공
- 삼성전자, 기존 노트북에도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 최신 기능 지원
- [리뷰] "장기간 재택 근무에 탁월"...화웨이 메이트북 14
- [OBS 비즈투데이] 삼성전자, '갤럭시 북 프로' 사전 판매 外
- “스마트폰 DNA 담은 노트북”...삼성 IT기기 경계가 무너진다
- 삼성전자 신작 노트북 자신감? 한 달 사용 후 환불 프로그램 운영
- ‘맥북 비켜’ 삼성,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 사전 판매...최저 130만원부터
- [갤럭시북프로 언팩]'11mm' 초슬림 노트북...갤럭시 생태계 확장(종합)
- "노트북은 왜 스마트폰 못되나" 해답 내놓은 노태문
- 삼성 첫 ‘노트북 언팩’ 행사... 재택근무 시장 커지자 갤럭시북 승부수
- 노트북이야, 태블릿이야?...삼성, 역대급 ‘갤럭시북 프로’ 시리즈 출시!
- 초경량 노트북...역대 첫 ‘삼성 노트북 언팩’서 공개
- 10년 만에 ‘호황’ 노트북 대전 불붙었다
- “선택의 폭 넓힌다” LG전자, 'LG 그램' 라인업 확대
- [잇써보니]‘갤럭시 북 프로’ “태블릿 급 휴대성에 스마트폰 DNA 그대로 이식”
- 삼성·LG·애플의 ‘PC 맞대결’ 더 치열해진다...야심작 속속 출시
- "노트북도 스마트폰처럼" 갤럭시 생태계 연결하는 삼성
- [리뷰] '무거운 짐진 외근자들아, 내게 오라' - 레노버 '씽크패드 X1 나노' 노트북
- 책처럼 접는 노트북 써보니...“터치감 좋은데 펜 휴대성 아쉬워”
- '델 래티튜드 9420', 기업용 노트북 새 기준을 제시하다
- 델, 비즈니스 PC 래티튜드 19종 출시...“국내 시장 입지 확대할 것”
- 삼성, AMOLED 탑재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 출시..모바일 지배력 노트북으로 확장

기사 검색

- ‘갤럭시 북’ 최신 기능, 기존 노트북에도 제공
- 삼성전자, 기존 노트북에도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 최신 기능 지원
- [리뷰] "장기간 재택 근무에 탁월"...화웨이 메이트북 14
- [OBS 비즈투데이] 삼성전자, '갤럭시 북 프로' 사전 판매 外
- “스마트폰 DNA 담은 노트북”...삼성 IT기기 경계가 무너진다
- 삼성전자 신작 노트북 자신감? 한 달 사용 후 환불 프로그램 운영
- ‘맥북 비켜’ 삼성,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 사전 판매...최저 130만원부터
- [갤럭시북프로 언팩]'11mm' 초슬림 노트북...갤럭시 생태계 확장(종합)
- "노트북은 왜 스마트폰 못되나" 해답 내놓은 노태문
- 삼성 첫 ‘노트북 언팩’ 행사... 재택근무 시장 커지자 갤럭시북 승부수
- 노트북이야, 태블릿이야?...삼성, 역대급 ‘갤럭시북 프로’ 시리즈 출시!
- 초경량 노트북...역대 첫 ‘삼성 노트북 언팩’서 공개
- 10년 만에 ‘호황’ 노트북 대전 불붙었다

기사 검색

- [써봤수다] 삼성 노트북 '갤럭시 북 프로 360' 하나로 '문자·통화 너끈'
- 화면 360도 회전... 태블릿 같은 노트북
- 360도 뱅뱅... S펜 호환 '갤럭시 북프로'
- 1분기 가전 트렌드, '홈루덴스족'이 주도했다
- 노트북도 거거익선 시대...16~17인치가 대세
- [라이프 트렌드&] 얇고 가벼운 이 노트북, 성능은 데스크톱 부럽잖네
- 3월 신학기 맞아 챙겨두면 손해 안 볼 '노트북 무엇'?
- LG, 세계 최경량 노트북으로 日시장 공략

기사 검색

부산일보사

'갤럭시 북' 최신 기능, 기존 노트북에도 제공

IT_과학>모바일 | IT_과학>콘텐츠 2021-05-02 배동진

기사원문 ★ 스크랩 뉴스 듣기 가 가

소비자들이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를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는 지난달 28일 '삼성 갤럭시 언팩'에서 공개한 노트북 신제품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의 혁신적인 기능들을 기존 갤럭시 북 시리즈에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들이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를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는 지난달 28일 '삼성 갤럭시 언팩'에서 공개한 노트북 신제품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의 혁신적인 기능들을 기존 갤럭시 북 시리즈에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블루투스 간편 연결·퀵 쉐어 지원
삼성전자, 연내 순차적 업데이트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는 갤럭시 모바일 DNA와 강력한 노트북 성능이 결합된 제품으로 초슬림·초경량 디자인과 함께 스마트폰·태블릿·무선 이어폰 등 다양한 갤럭시 제품들과의 매끄러운 연동성, 삼성 노트북만의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해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버즈' 시리즈의 케이스만 열면 자동으로 노트북과 연결되는 '블루투스 간편 연결', 네트워크 연결이나 계정 로그인 없이 여러 파일을 갤럭시 기기간 쉽고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 '퀵 쉐어', 노트북으로 스마트 홈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싱스' 등 다양한 기능을 마이크로소프트 앱스토어 다운로드를 통해 연내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 모델은 지난 해 12월 출시한 '갤럭시 북 플렉스2 5G'·'갤럭시 북 플렉스2', '갤럭시 북 이온2'이다. 배동진 기자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50217400202310

전자신문

삼성전자, 기존 노트북에도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 최신 기능 지원

IT_과학>모바일 | IT_과학>콘텐츠 2021-05-02 박소라

기사원문 ★ 스크랩 뉴스 듣기 가 가

삼성전자가 최근 공개한 노트북 신제품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의 혁신적인 신규 기능을 기존 갤럭시 북 시리즈에도 지원한다.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는 갤럭시 모바일 DNA와 강력한 노트북 성능이 결합된 제품이다. 초슬림 · 초경량 디자인과 함께 스마트폰 · 태블릿 · 무선 이어폰 등 다양한 갤럭시 제품과 매끄러운 연동성이 특징이다.

삼성전자가 최근 공개한 노트북 신제품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의 혁신적인 신규 기능을 기존 갤럭시 북 시리즈에도 지원한다.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는 갤럭시 모바일 DNA와 강력한 노트북 성능이 결합된 제품이다. 초슬림 • 초경량 디자인과 함께 스마트폰 • 태블릿 • 무선 이어폰 등 다양한 갤럭시 제품과 매끄러운 연동성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버즈 시리즈 케이스만 열면 자동으로 노트북과 연결되는 '블루투스 간편 연결' △네트워크 연결이나 계정 로그인 없이 여러 파일을 갤럭시 기기간 쉽고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 퀵 쉐어 △노트북으로 스마트 홈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싱스 등 기능을 연내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사용자 휴대폰(Your Phone), 퀵 서치, 스크린 레코더 등 기존 앱의 신규 기능은 앱 업데이트를 통해 현재 사용이 가능하다.
대상 모델은 지난 해 12월 출시한 갤럭시 북 플렉스2 5G • 갤럭시 북 플렉스2 • 갤럭시 북 이온2이다.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사양과 최적의 사용 경험을 고려해 업데이트 지원 모델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모델별 사양에 따라 지원되는 기능은 다를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와 다양한 갤럭시 기기와의 매끄러운 연동성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존도 삼성 디지털프라자 내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운영한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6/2020112602770.html

기사 검색

아주경제

[리뷰] "장기간 재택 근무에 탁월"...화웨이 메이트북 14

IT_과학>모바일 | IT_과학>콘텐츠 | IT_과학>보안 2021-04-30 정석준

기사원문 ★스크랩 뉴스 듣기 가 가

3:2 화면비에 저소음 클릭 기능 갖춰... 장시간, 고사양 작업에 적합 키보드 사이 눈에 띄는 카메라 위치와 지문인식 기능... 사생활 보호 제공 100만원 초반대 가격에 1.49kg 가벼운 무게, 낮은 구매력은 풀어나가야 할 숙제

"한번 앉으면 편하게 쓸 수 있다."
중국 최대 전자제품 제조 기업 화웨이가 올해 출시한 노트북 '메이트북14'를 직접 사용하며 느낀 점이다.
화웨이 메이트북14.[사진=정석준 기자]
메이트북14는 코로나 팬데믹 동안 장려된 재택근무 환경에 적합한 제품이다. 3:2 화면 비율에 14인치 크기 화면으로 16:10 화면비의 노트북보다 화면이 세로로 더 길어 편하게 문서 작업을 할 수 있었다. 웹 서핑을 할 때도 많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화면이 움직일 수 있는 각도 범위도 커 상황에 맞게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다.
3:2 화면 비율인 메이트북14(좌)와 16:10 화면비의 노트북 비교(우). [사진=정석준 기자]
화면은 2K 해상도를 지원하는 14인치 풀뷰(FullView) 디스플레이에 초슬림 배젤(4.9mm)을 채택해 제품에서 화면이 차지하는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렸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처럼 눈을 피로하게 하는 청색광을 최소화하는 로우 블루라이트 기능을 갖춰 장시간 업무에도 눈이 받는 부담을 줄였다.
메이트북14.[사진=정석준 기자]
내장 스펙도 든든하다. CPU는 AMD 라이젠 4600H를, 램은 16GB 듀얼 메모리를 탑재했고, SSD 용량은 512GB에 달한다. 외장 GPU는 따로 없지만 CPU와 결합한 AMD 라데온 그래픽으로 어도비 프리미어 등 고사양이 요구되는 영상, 그래픽 작업도 무난히 실행할 수 있었다. 오래 사용하는 데도 부담 없다. 무소음 기기 쿨링 기능 두 개의 S형 화웨이 샤크 핀 팬(HUAWEI Shark fin fan)을 활용해 장기간 작업에 생기는 발열 현상과 소음을 잡았기 때문이다.
메이트북14.[사진=정석준 기자]
메이트북14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카메라'와 '지문인식' 기능이다. 화웨이 메이트북 시리즈의 카메라는 F6과 F7 사이에 자연스럽게 하나의 키캡처럼 위치한다. 보통 화면 프레임 정 중앙에 위치한 카메라가 키보드로 온 것은 얇은 화면 베젤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였다. 한번 누르면 튀어 오르고 다시 누르면 간편히 넣을 수 있어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여둘 필요가 없다.
메이트북14.[사진=정석준 기자]
보안 강화에도 신경 썼다. 지문 인식 기능으로 화면 잠금 상태에서 빠르게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보안이 필요한 작업 중 잠깐 자리를 비우거나 사생활 보호에 탁월한 기능이다. 메이트북14 자판(위)과 일반 노트북 자판(아래). [사진=정석준 기자]
메이트북14. [사진=정석준 기자]
노트북 왼쪽에 위치한 충전 단자는 USB C타입으로 최근 출시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충전 단자와 같아 사용이 편리했다. 배터리 용량은 56Wh로 최대 9시간 30분 동안 1080p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함께 제공되는 고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15분 충전으로 2시간 30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 외 단자는 오디오, HDMI, USB(2개)가 마련됐지만, 블루투스를 이용해 이어폰이나 키보드, 마우스를 사용할 수도 있다.
아쉬운 부분은 무게와 가격대였다. 지난해 애플은 13인치 디스플레이, 무게 1.29kg 하드웨어에 애플 자체 칩 M1을 탑재한 '맥북 에어'를 129만원에 공개한 바 있다. 반면 메이트북14 무게는 1.49kg이다. 평소 무게 1kg 미만 노트북을 사용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들고 다니는 데 불편함을 느꼈다. 출고가 104만9000원에 비해 이목을 끌만한 기능이 없다는 점은 삼성이나 애플보다 충성 고객이 부족한 화웨이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정석준 기자 mp1256@ajunews.com

https://www.ajunews.com/view/20210426172736984

OBS

[OBS 비즈투데이] 삼성전자, '갤럭시 북 프로' 사전 판매 外

IT_과학>모바일 | 지역>경기 | 지역>충북 2021-04-29 양태환

기사원문 ★스크랩 뉴스 듣기 가 가

1.

삼성전자가 다음 달 14일 공식출시되는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의 사전 판매를 이번 달 29일부터 12일간 진행합니다.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는 갤럭시 모바일 DNA와 노트북의 강력한 성능을 결합한 제품으로 삼성전자의 혁신적인 모바일 기술인 AMOLED 디스플레이, LTE · 5G 이동통신, 초슬림 · 초경량 디자인 등이 적용된 것이 특징인데요.

360도 회전 디스플레이에 S펜을 지원하는 '갤럭시 북 프로 360'과 초슬림 초경량 디자인의 '갤럭시 북 프로' 2종이 사전 판매됩니다.

1.
삼성전자가 다음 달 14일 공식출시되는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의 사전 판매를 이번 달 29일부터 12일간 진행합니다.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는 갤럭시 모바일 DNA와 노트북의 강력한 성능을 결합한 제품으로 삼성전자의 혁신적인 모바일 기술인 AMOLED 디스플레이, LTE · 5G 이동통신, 초슬림 · 초경량 디자인 등이 적용된 것이 특징인데요.
360도 회전 디스플레이에 S펜을 지원하는 '갤럭시 북 프로 360'과 초슬림 초경량 디자인의 '갤럭시 북 프로' 2종이 사전 판매됩니다.
2.
S-OIL이 '청년 푸드트럭 유류비 전달식'을 갖고 '함께 일하는 재단'에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S-OIL은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푸드트럭 활성화를 통해 청년실업 해소와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푸드트럭 유류비 후원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요.
모두 52개 팀을 선발해 각 팀별로 15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
기아와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순환경제를 위한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용 후 배터리에서 리튬을 포함한 금속을 회수해 전기차 배터리의 친환경적 처리가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가능성 및 기술 기반을 확보한건데요.
양사는 배터리 분해, 금속자원 회수, 양극재 이용, 배터리 제조, 차량 장착에 이르는 EV 배터리 순환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사용 후 배터리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다양한 관리 모델을 만들어 ESG 경영 확대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4.
하나은행이 기술보증기금과 'ESG 경영 및 한국판 뉴딜 기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은 ESG 경영에 앞장서는 기업의 성장과 한국판 뉴딜 산업의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유동성 지원은 물론 금융비용 절감 등 적극적 ESG 금융 지원을 전개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지원금은 총 1천억 원 규모로 지원 대상은 기술력을 갖춘 친환경 기업, 사회적 책임 기업, 디지털 뉴딜 기업 등입니다.
5.
부산 해운대구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이 소유 중인 해운대구 우동 산2번지 토지를 지난 22일 해운대구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받은 토지는 장산산림욕장과 장산 계곡이 위치한 입야로 축구장 5개 크기 면적에 달하는데요.
해운대구는 "이 회장 유족이 해운대구가 장산을 구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 중인 사실을 알고 산림 보존에 힘을 보태고자 기부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비즈투데이였습니다.
<영상편집: 조민정><양태환(taeyang007@obs.co.kr)>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8024

기사 검색

헤럴드경제

"스마트폰 DNA 담은 노트북"...삼성 IT기기 경계가 무너진다

IT_과학>모바일 | 경제>반도체 | IT_과학>콘텐츠 2021-04-29 | 박지영 기자

기사원문 ★ 스크랩 뉴스 듣기 가 가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DNA와 노트북PC의 강력한 성능을 결합한 '모바일 컴퓨터'를 28일 공개했다. 갤럭시의 각종 편의 기능을 넣고, 기기 간 연동성을 강화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DNA와 노트북PC의 강력한 성능을 결합한 '모바일 컴퓨터'를 28일 공개했다. 갤럭시의 각종 편의 기능을 넣고, 기기 간 연동성을 강화했다. 갤럭시 북 프로 360은 15.6형과 13.3형, 갤럭시 북 프로는 15.6형과 13.3형으로 출시된다. 29일부터 오는 5월 10일까지 사전 판매를 진행한다. 공식 출시 일은 다음 달 14일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사장은 "삼성전자는 소비자의 일상에 자유를 더하는 모바일 혁신을 선도해왔다"며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는 초슬림·초경량 디자인, 강력한 성능, 갤럭시 기기와의 유기적 연동을 통해 언제나 연결된 세상을 위한 모바일 컴퓨터"라고 설명했다.

갤럭시 북 프로 360은 ▷미스틱 네이비 ▷미스틱 실버 ▷미스틱 브론즈 3가지 색상이다. 가격은 세부 사양에 따라 181만~274만원이다. 갤럭시 북 프로는 ▷미스틱 블루 ▷미스틱 실버 ▷미스틱 핑크 골드 색상이다. 가격은 130만~251만원이다.

▶모바일 경험 익숙한 사용자들을 위한 노트북=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제공하던 여러 기능이 노트북으로 들어왔다. 갤럭시 기기 간 파일 전송 및 공유를 돕는 ▷스마트 스위치 ▷퀵 쉐어 기능을 탑재했다. 스마트 싱스(Smart Things)와의 연동으로 노트북을 스마트 홈 허브로 사용할 수 있다. 모두 삼성전자 노트북 최초다. 추후 음성 명령 AI 플랫폼 '빅스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협업으로 기기 간 연동성도 높아졌다. '윈도우에 연결하기'와 MS의 '사용자 휴대폰' 앱 통합으로,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에서 최대 5개 스마트폰 앱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 '세컨드 스크린'을 활용하면 갤럭시 태블릿에 노트북의 화면을 복제·확장할 수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 워치에 이어 노트북에도 AM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갤럭시 북 프로 360은 터치가 가능한 슈퍼 AMOLED 디스플레이를 넣었다. S펜을 사용한 필기가 가능하다.

▶휴대성·성능↑...노트북 기본에 충실=휴대성과 성능도 역대급이다. 두께가 11㎜대에 불과하다. 갤럭시 북 프로 13.3형 모델은 11.2㎜ 두께에 868g 무게로, 역대 삼성 갤럭시 북 시리즈 중 가장 가볍다. 기본 충전기도 새로워졌다. 65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USB-C 타입 범용 충전기로, 노트북은 물론 스마트폰, 태블릿을 모두 충전할 수 있다.

최신 인텔 11세대 코어 프로세서와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을 탑재했다. 인텔의 고성능, 고효율 모바일 PC인증 제도인 '인텔 Evo 플랫폼' 인증도 획득했다.

'성능 최적화 모드'는 노트북 사용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성능과 팬 소음, 배터리 사용량 등을 조절해준다. 하루 종일 버벅거림 없이 최적화된 환경에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다. AKG 스피커로 멀티 미디어 감상도 더욱 풍부해졌다. 박지영 기자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429000647

경향신문

삼성전자 신작 노트북 자신감? 한 달 사용 후 환불 프로그램 운영

IT_과학>모바일 | 경제>서비스_쇼핑 | 경제>유통 2021-04-29 |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기사원문 ★ 스크랩 뉴스 듣기 가 가

삼성전자가 29일 새로 나온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 사전 판매를 시작한다. 사전 구매 고객에게는 한 달간 사용하다가 반납을 희망하면 환불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삼성전자가 29일 새로 나온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 사전 판매를 시작한다. 사전 구매 고객에게는 한 달간 사용하다가 반납을 희망하면 환불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삼성전자는 이날 갤럭시 북 프로 신작 출시(5월14일)를 앞두고 5월10일까지 삼성전자 홈페이지, 11번가, G마켓 등 온라인 오픈마켓과 전국 삼성 디지털프라자 등에서 사전 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전 판매 대상은 360도 회전 디스플레이에 S펜을 지원하는 투인원(2-in-1) 노트북 '갤럭시 북 프로 360'과 초슬림 초경량 디자인의 '갤럭시 북 프로' 2종이다.

삼성전자는 사전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달간 사용하다가 반납을 희망하면 결제한 금액 그대로 환불해주는 '갤럭시 북이랑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 구매 후 이벤트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제품 반납은 정식 출시 한 달 후인 6월14일부터 할 수 있다. 단, 반납 시 본체나 디스플레이 파손, 전원 미작동, 침수 등 손상이 없어야 한다.

삼성전자는 북미에서 폴더블폰과 TV에 대해 100일동안 사용해보고 만족하지 못하면 환불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선 갤럭시S21 등 스마트폰을 3일 간 빌려써보는 '갤럭시 투 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한 달 사용 후 환불해주는 프로그램은 처음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비자가 이용해 보면 만족할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제품을 구매하고 기존 PC를 반납하면 중고 매입 시세에서 최대 15만원을 추가 보상해주는 '갤럭시 북 트레이드인(Trade-In)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밖에 사전 구매 고객에게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프로', 삼성 케어 플러스 6개월 무료 이용권, 삼성 홈 피트니스 베이직 3개월 체험권을 제공한다. '삼성 홈 피트니스'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호텔신라 트레이너들의 운동 영상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5월 말 서비스를 시작한다.

갤럭시 북 프로 360은 15.6인치와 13.3인치의 두 가지 모델에 미스틱 네이비, 미스틱 실버, 미스틱 브론즈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가격은 181만~ 274만원이다. 갤럭시 북 프로는 15.6인치와 13.3인치의 두 가지 모델에 미스틱 블루, 미스틱 실버, 미스틱 핑크 골드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가격은 130만~251만원이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4291040001&code=920401

기사 검색

아주경제

'맥북 비켜' 삼성,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 사전 판매...최저 130만원부터

IT_과학>모바일　2021-04-29 | 장문기

기사원문　★ 스크랩　뉴스 듣기　가　가

내달 10일까지 오픈마켓·가전양판점서 구매...한달 사용 후 '전액 환불' 이벤트도 진행

삼성전자가 노트북 신제품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의 사전 판매를 시작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2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북 프로360', '갤럭시 북 프로' 등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의 사전 판매가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진행된다. 공식 출시는 다음달 14일이다.

아시아경제

[갤럭시북프로 언팩]'11mm' 초슬림 노트북...갤럭시 생태계 확장(종합)

IT_과학>모바일 | 경제>반도체 | IT_과학>콘텐츠　2021-04-29 | 차민영

기사원문　★ 스크랩　뉴스 듣기　가　가

삼성전자, 28일 노트북 단독 최초 '삼성 갤럭시 언팩' 개최 신제품 '갤럭시 북 프로·북 프로 360' 공개 노태문 무선사업부장 사장 등 11명 연사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삼성전자 최초의 노트북 단독 언팩(신제품 공개) 행사로 화제를 모은 28일(한국시간) '삼성 갤럭시 언팩'에서도 '갤럭시 생태계'는 공통 화두였다. 스마트폰부터 스마트워치-스마트키·스마트가전 등을 잇는 유기적인 생태계를 노트북까지 확장하겠다는 삼성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노트북 신제품들은 11㎜ 두께의 초슬림 디자인에 최신 인텔 프로세서까지 갖춰 역대 갤럭시 북 시리즈 중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한다.

삼성전자가 노트북 신제품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의 사전 판매를 시작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2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북 프로360', '갤럭시 북 프로' 등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의 사전 판매가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진행된다. 공식 출시는 다음달 14일이다.
갤럭시 북 프로360은 360도 회전 디스플레이에 S펜을 지원하는 투인원(2-in-1) 노트북 제품, 갤럭시 북 프로는 초슬림 초경량 디자인이 특징인 제품이다.
사전 판매는 삼성전자 홈페이지, 11번가·G마켓 등 온라인 오픈마켓, 전국 삼성 디지털프라자, 전자제품 양판점 등에서 진행한다.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 사전 구매 고객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갤럭시 북이랑 한 달 살기'는 신제품을 구매한 뒤 한 달 동안 마음껏 사용하고, 반납을 희망하는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를 구매하고 이벤트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제품 반납 신청은 정식 출시 한 달 후인 6월 14일부터 할 수 있다. 다만 제품을 반납할 때 본체나 디스플레이 파손, 전원 미작동, 침수 등 제품 손상이 없어야 한다.
이번에 출시된 신제품을 구매한 뒤 기존 PC를 반납하면 중고 매입 시세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추가로 보상하는 '갤럭시 북 트레이드-인(Trade-In)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에 설치된 '갤럭시 북 멤버스'를 통해 내달 17일부터 6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갤럭시 버즈 프로 △삼성 케어 플러스 6개월 무료 이용권 △삼성 홈 피트니스 베이직 3개월 체험권을 제공한다.
갤럭시 모바일 DNA, 노트북의 강력한 성능을 결합한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는 △AMOLED 디스플레이 △LTE·5G 이동통신 △초슬림·초경량 디자인 등이 적용된 게 특징이다. 스마트폰, 태블릿, 무선 이어폰 등 다양한 갤럭시 기기와 유기적으로 연동돼 편리한 사용성도 제공한다.
갤럭시 북 프로 360, 갤럭시 북 프로는 모두 15.6인치형과 13.3인치형 디스플레이 등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된다.
갤럭시 북 프로 360은 미스틱 네이비, 미스틱 실버, 미스틱 브론즈 등 세 가지 색상이며, 가격은 181만~274만원이다.
갤럭시 북 프로는 미스틱 블루, 미스틱 실버, 미스틱 핑크 골드 등 세 가지 색상이며, 가격은 130만~251만원이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노트북 신제품 갤럭시 북 프로 360.[사진=삼성전자 제공]
장문기 기자 mkmk@ajunews.com

https://www.ajunews.com/view/20210429090848748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삼성전자 최초의 노트북 단독 언팩(신제품 공개) 행사로 화제를 모은 28일(한국시간) '삼성 갤럭시 언팩'에서도 '갤럭시 생태계'는 공통 화두였다. 스마트폰부터 스마트워치-스마트키·스마트가전 등을 잇는 유기적인 생태계를 노트북까지 확장하겠다는 삼성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노트북 신제품들은 11㎜ 두께의 초슬림 디자인에 최신 인텔 프로세서까지 갖춰 역대 갤럭시 북 시리즈 중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한다.
"갤럭시 경험 담은 PC 만들자"
삼성전자는 이날 오후 11시 전세계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하고 노트북 신제품 '갤럭시 북 프로·북 프로360' 등 2종을 공개했다. '가장 얇은 갤럭시 북' 갤럭시 북 프로와 360도 회전 디스플레이, S펜을 제공하는 갤럭시 북 프로 360이다. 총 50여분간 진행된 언팩 행사에는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을 비롯해 11명의 연사가 등장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노태문 사장은 검은색 재킷과 티셔츠를 착용한 채 삼성전자의 갤럭시 브랜드 사운드 '오버 더 호라이즌'의 피아노가이즈 버전에 맞춰 등장했다. 오버 더 호라이즌은 2011년 삼성전자가 처음 선보인 브랜드 사운드로 매년 색다르게 편곡돼 플래그십 스마트폰 신제품들에 탑재됐다.
노태문 사장은 "새 모바일 컴퓨팅을 구상하면서 노트북이 스마트폰 같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졌다"며 "해답은 이동성, 연결성, 연속성. 이동 과정에서의 성능, 생생한 디스플레이, 다른 장치들과의 유기적인 결합 등 갤럭시 경험의 핵심이었던 모든 것으로, 이를 PC로 가져왔다"고 말했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DNA가 담긴 모바일 컴퓨터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스마트폰-노트북 연계망 구축 노력
삼성전자는 유기적 결합의 핵심인 갤럭시 생태계를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다. 노트북과 스마트폰 간 연계를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파트너사들과의 협력이 필수였다. 노태문 사장은 "처음으로 안드로이드와 윈도우 운영체제를 완벽하게 합쳤다"며 "최고의 연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개방적 협업을 지속한 결과"라고 했다.
윈도우 운영체제를 탑재한 노트북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갤럭시 스마트폰과 매끄럽게 연동됐다. 일례로 '윈도우에 연결하기'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용자 휴대폰' 앱 통합을 통해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에서 최대 5개의 스마트폰 앱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문자를 보내거나 캘린더 앱에서 일정을 확인하고 게임도 즐길 수 있다. '퀵 서치'나 '퀵 쉐어', '스마트 스위치' 등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기능도 노트북 최초로 지원한다.
노트북 최초로 '스마트싱스'와의 연동을 통해 노트북이 스마트홈 허브 역할도 맡게 됐다.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의 스마트싱스 앱을 통해 집 안의 불을 끄거나 온도를 바꿀 수 있다. 주방 가전 제어도 가능하고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갤럭시 스마트 태그 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다. 향후에는 인공지능(AI) 플랫폼 '빅스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외부 파트너사들과의 끈끈한 연대는 언팩 행사에서도 감지됐다. 연사 11명 중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고위 관계자 3명이 연사로 나섰을 정도다. 파노스 파네이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제품 책임자(CPO)는 "최고의 운영체제와 모바일 기술인 윈도우와 갤럭시 생태계간 연동을 위해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갤럭시 생태계에 대해서는 "심플하고 부드러우며 매우 멋지다"며 치켜세웠다.
인텔 11세대 코어 프로세서...초슬림 디자인
삼성은 하드웨어 측면의 우수성도 강조했다. 갤럭시 북 프로와 북 프로 360에는 LTE·5G 이동통신망이 적용됐다. 향후 차세대 와이파이 6E(Wi-Fi 6E)도 지원할 예정이다. 최신 인텔 11세대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해 인텔의 고효율 PC인증 제도인 '인텔 이보(Evo) 플랫폼' 인증도 획득했다. 특히 갤럭시 북 프로 360의 경우 S펜이 호환된다. 20시간 가량 비디오 재생이 가능한 강력한 배터리도 장점이다.
초슬림·초경량 디자인도 주요 특징 중 하나다. 갤럭시 북 프로는 클램쉘(조개) 모양의 평범한 디자인이지만 역대 가장 얇은 두께를 자랑한다. 13.3형 모델은 11.2㎜ 두께에 무게는 868g이다. 삼성전자 글로벌 기업전략담당 찰스 맥캐런은 "갤럭시 북 프로는 갤럭시 북 시리즈 중 가장 얇은 노트북으로 스마트폰보다 더 얇은 수준"이라며 "갤럭시 북 프로 360은 PC 이상의 제품으로 창조적인 캔버스"라고 말했다. 표면에 항공우주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특수 재질을 사용해 내구성도 강화했다.
갤럭시 북 최초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도 탑재해 풍부한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선사한다. 디스플레이는 색 표현영역이 디지털영화협회기준(DCI-P3) 120%로 뛰어나며, 감각적인 영상 감상 경험을 선사하는 100만대1 명암비를 갖췄다. 인텔리전트 컬러 엔진도 탑재해 자동 색 보정을 강화했다. AKG 스피커를 탑재하고 '돌비 애트모스' 기능도 갖췄다. 불필요한 주변 소음을 제거해주는 '인텔리전트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지원한다.
가위식 매커니즘을 새로 적용한 '프로 키보드'는 더 넓은 키와 고무 돔으로 키가 움직이는 거리를 1mm로 줄였다. 터치패드는 전작 대비 최대 23% 커져 움직임이 편하다. 65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USB-C 타입 범용 충전기를 제공해 휴대성을 높이고 쓰레기 배출량도 줄였다. 충전기 부피는 전작 대비 약 52% 작아졌다. 삼성전자 북미법인 NC 제품담당인 하산 아줌은 "더 건강한 행성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고 있다"며 "패키징 사이즈도 39% 줄여 더 적은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42905212832507

기사 검색

MT 머니투데이

"노트북은 왜 스마트폰 못되나" 해답 내놓은 노태문

IT_과학>모바일 2021-04-29 박효주기자

기사원문 ★스크랩 뉴스 듣기 가 가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삼성전자가 새롭게 선보인 노트북(랩톱) '갤럭시북 프로' 시리즈가 이전 제품보다 더 강력하게 갤럭시 기기와 통합됐다. 노트북 시장 공략의 핵심 키워드로 '갤럭시 생태계'를 부각한 것이다.

朝鮮日報

삼성 첫 '노트북 언팩' 행사... 재택근무 시장 커지자 갤럭시북 승부수

IT_과학>모바일 | IT_과학>콘텐츠 2021-04-28 장형태 기자

기사원문 ★스크랩 뉴스 듣기 가 가

'갤럭시 북 프로' 온라인 발표

"갤럭시 스마트폰의 DNA와 PC의 강력한 성능을 결합했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삼성전자가 새롭게 선보인 노트북(랩톱) '갤럭시북 프로' 시리즈가 이전 제품보다 더 강력하게 갤럭시 기기와 통합됐다. 노트북 시장 공략의 핵심 키워드로 '갤럭시 생태계'를 부각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8일(한국시간) 오후 11시 온라인으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 노트북 신제품 2종을 공개했다. 삼성전자가 노트북 단독 공개 행사를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갤럭시북 프로 시리즈 소개보단 갤럭시 에코시스템(생태계)에 통합된 제품 사용성을 강조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사장은 "왜 노트북은 스마트폰처럼 될 수 없겠냐는 질문을 스스로 던졌다. 해답은 우리 눈앞에 있었다"며 "휴대성, 연결성, 연속성 등 모든 경험에는 항상 갤럭시가 있었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지난 10년간 스마트폰에서 쌓은 모바일 경험을 노트북에 쏟아부은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노 사장은 "삼성전자는 오랜 시간 흥미로운 모바일 경험을 개척해왔고 새로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을 연결했다"며 "이 모든 것을 갤럭시 생태계에 막 합류한 PC에 적용했다"고 갤럭시북 프로를 소개했다.
삼성전자가 이날 공개한 제품은 360도 회전 디스플레이에 S펜을 지원하는 투인원(2-in-1) 노트북 '갤럭시북 프로 360'과 초슬림·초경량 디자인을 담은 '갤럭시북 프로' 2종이다. 노 사장은 갤럭시북 프로에 대해 "스마트폰처럼 얇지만, 성능은 PC처럼 뛰어나며 제한 없는 연결성으로 어디서든 항상 자유롭게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갤럭시북 프로 시리즈는 노트북으로서의 뛰어난 성능 외에 갤럭시 스마트폰의 핵심 사용 경험을 그대로 이식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오랜 파트너사인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개방적 협력의 결과물로 안드로이드, 윈도의 완벽한 통합을 이뤄냈다.
화상으로 행사에 참석한 파노스 파네이 MS 최고 제품 책임자는 "MS와 삼성은 사용자들이 더 쉽고 간편하게 갤럭시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윈도 최적화 등 협력을 계속해왔다"고 설명했다.
노 사장도 "갤럭시북은 갤럭시 세계로 연결되는 창으로서 여러분이 즐겨 쓰는 갤럭시와 한 몸처럼 호환되도록 설계됐다"며 "삼성과 인텔, MS 간의 놀라운 협업이 이뤄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며 "감각적인 디자인에 뛰어난 휴대성과 무한의 연결성 그리고 끊김 없는 연속성을 겸비한 갤럭시북이 차세대 PC 시장을 이끌 모바일 컴퓨터"라고 자부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2900203540451&outlink=1&ref=%3A%2F%2F

"갤럭시 스마트폰의 DNA와 PC의 강력한 성능을 결합했다."
삼성전자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와 인텔 최신형 칩셋을 탑재한 고급형 노트북 '갤럭시 북 프로' 신제품을 28일 온라인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공개했다. 삼성이 노트북 공개 행사를 연 것은 처음이다.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이후 비대면 근무 확산으로 급성장한 노트북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삼성은 이번 행사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정도에 그쳤던 '갤럭시 생태계'를 노트북 분야까지 확장시키겠다는 전략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하드웨어 강자 인텔, 소프트웨어 강자 마이크로소프트(MS)와 '삼각 동맹'을 맺었다.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초경량 디자인, 강력한 성능뿐 아니라 다른 갤럭시 기기와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진정한 모바일 컴퓨터"라고 했다.
◇삼성 최초의 노트북 공개행사
이날 공개된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는 360도 회전하는 화면과 터치펜을 지원하는 '갤럭시 북 프로 360'과 초슬림·초경량 디자인을 갖춘 '갤럭시 북 프로' 두 모델이다.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는 전작보다 무게와 두께를 더 줄여 휴대성을 강조했다. 갤럭시 북 프로 13.3인치 모델은 두께 11.2㎜, 무게 868g으로 역대 삼성 노트북 중 가장 얇고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필수 부속품인 충전기도 기존 제품 대비 52%가량 크기를 줄여 휴대가 더 편해졌다. 삼성전자는 "충전 단자도 USB-C 타입으로 통일해 충전기 하나로 스마트폰·태블릿 모두 충전 가능하다"고 했다.
화면은 더 선명해지고 성능은 더 강력해졌다. 삼성은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들어가는 OLED 디스플레이를 자사 윈도 노트북에 최초로 장착했다. 백라이트가 있는 기존 LCD(액정) 화면보다 더 얇아지고 명암비는 더 좋아졌다. 또한 인텔리전트 컬러 엔진을 적용해 사용자가 보고 있는 콘텐츠에 따라 자동으로 색감을 최적화해준다. 예컨대 게임을 할 때는 선명한 모드, 영화를 볼 때는 풍부한 색상 재현 화면 모드를 적용하는 것이다. CPU(중앙처리장치)는 인텔의 최신 11세대 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됐다. 여기에 인텔로부터 고성능·고효율 모바일 PC 인증인 '인텔 Evo 플랫폼'도 획득했다. 국내에서는 29일부터 사전 판매를 시작하며 내달 14일 정식 출시 예정이다. 가격은 갤럭시 북 프로가 130만~251만원, 갤럭시 북 프로 360은 181만~274만원이다.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한 몸처럼 쓴다
삼성전자는 공개 행사 내내 '갤럭시 기기와의 연결성'을 강조했다. 세계 판매량 1위 스마트폰인 갤럭시 이용자들이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자유자재로 오가며 쓰도록 해 자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노트북과 스마트폰 모두 동일 운영체제를 쓰는 애플과 달리, 삼성은 윈도 운영체제 노트북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연동시키기 위해 MS와 긴밀한 협력을 했다고 밝혔다.
파노스 파네이 MS 최고제품책임자는 "윈도 운영체제와 갤럭시 스마트폰의 생태계 연동을 위해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갤럭시 스마트폰 내 '윈도에 연결하기' 기능을 통해 노트북에서도 최대 5개의 스마트폰 앱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 노트북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문자도 보내고 게임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갤럭시 폰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도 바로 노트북 갤러리 앱에서 확인하고 편집할 수 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 녹화' 기능도 이번 갤럭시북 시리즈에 그대로 이식됐다. 또 갤럭시 북 프로 360 모델은 갤럭시노트와 갤럭시탭에 쓰는 S펜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음성 비서인 빅스비도 추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1/04/28/3JZGJEUWGJCZJBV7Q2QG22Y5RI/?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기사 검색

헤럴드경제

노트북이야, 태블릿이야?...삼성, 역대급 '갤럭시북 프로' 시리즈 출시!

IT_과학>모바일 | IT_과학>콘텐츠 | IT_과학>보안 2021-04-28 박혜림 기자

기사원문 ★스크랩 뉴스듣기 가 가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초슬림 초경량 디자인, 강력한 성능, 갤럭시 기기와의 유기적인 연동을 통해 언제나 연결된 세상을 위한 진정한 모바일 컴퓨터.'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초슬림 초경량 디자인, 강력한 성능, 갤럭시 기기와의 유기적인 연동을 통해 언제나 연결된 세상을 위한 진정한 모바일 컴퓨터."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DNA와 노트북PC의 강력한 성능을 결합한 '모바일 컴퓨터'를 공개했다. '갤럭시 북 프로(Galaxy Book Pro)'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360도 회전 디스플레이에 S펜을 지원하는 투인원(2-in-1) 노트북 '갤럭시 북 프로 360'과 초슬림 초경량 디자인의 정수를 보여주는 '갤럭시 북 프로' 2종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산된 태블릿 및 노트북PC 시장의 수요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기기간 연결성을 확대해 갤럭시 사용자들의 모바일 경험을 향상시키겠단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28일(한국시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삼성 갤럭시 언팩(Samsung Galaxy Unpacked)' 행사에서 노트북 신제품을 전격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는 노트북PC에 갤럭시 스마트폰의 특징을 결합한 새로운 모바일 컴퓨터다.
갤럭시 북 프로 360은 15.6형과 13.3형 디스플레이의 두 가지 모델, 갤럭시 북 프로는 15.6형과 13.3형 디스플레이의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된다.
4종 모두 삼성전자의 혁신적인 모바일 기술인 ▷AMOLED 디스플레이 ▷LTE·5G 이동통신 ▷초슬림·초경량 디자인 등을 적용해 업무나 학습 효율, 창의력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최상의 엔터테인먼트 경험도 선사한다.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삼성전자는 소비자의 일상생활에 자유를 더할 수 있는 새로운 하드웨어·소프트웨어·소통 방식 등 모바일 혁신을 선도해왔다"며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는 연결된 세상을 위한 진정한 모바일 컴퓨터"라고 자신했다.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는 다음달 14일부터 전세계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출시되는 제품 사양과 색상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오는 29일부터 사전 판매를 시작하며, 5월 14일 정식 출시된다.
갤럭시 북 프로 360은 미스틱 네이비, 미스틱 실버, 미스틱 브론즈 세 가지 색상으로 나온다. 가격은 CPU, 그래픽카드, 메모리 등 세부 사양에 따라 181만~274만원이다.
갤럭시 북 프로는 미스틱 블루, 미스틱 실버, 미스틱 핑크 골드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가격은 CPU, 그래픽카드, 메모리 등 세부 사양에 따라 130만~251만원이다.
모바일 경험 익숙한 사용자들을 위한 노트북...강력한 휴대성 제공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는 모바일 경험에 익숙한 사용자들에게 강력한 휴대성과 연결성을 제공해 일상 경험을 보다 간편하고 직관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모두 11㎜대의 두께에 불과하다. 특히 이 가운데 갤럭시 북 프로 13.3형 모델은 11.2㎜ 두께에 무게는 868g로 역대 삼성 갤럭시 북 시리즈 중 가장 얇고 가볍다.
초슬림·초경량 디자인을 적용하면서도 내구성까지 갖췄다. 전세계 주요 항공우주 제조사에서 사용 중인 알루미늄 6000시리즈와 5000시리즈가 사용됐다. 낙하, 진동, 먼지 및 습도 등 미국 국방부 내구성 표준 검사 규격을 만족한다.
또 완전히 새로운 기본 충전기를 제공하며 모바일 사용자에게 만족스러운 배터리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 크기는 전작 대비 약 52% 작아졌으며, 65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USB-C 타입 범용 충전기를 제공한다. 충전기 하나만으로 노트북과 스마트폰, 태블릿을 모두 충전할 수 있게된 셈이다.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 워치에 이어 노트북인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에도 AM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다. 특히 360도 회전이 가능한 갤럭시 북 프로 360은 터치가 가능한 슈퍼 AMOLED 디스플레이를 넣었다. 완전히 접어서 태블릿처럼 사용하며 손이나 S펜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고, 텐트처럼 세우고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며 간단한 필기를 할 수도 있다.
AKG 스피커도 적용해 풍부한 멀티미디어 감상 경험에 방점을 찍었다. '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 기능을 켜면 더욱 몰입감 있는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다.
고성능 하드웨어·소프트웨어로 노트북 사용성 극대화...S펜 사용성 ↑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는 최신 인텔 11세대 코어 프로세서(11th Gen Intel® Core™ processors)와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Intel® Iris® Xe graphics)을 탑재해 강력한 성능을 제공한다. 인텔의 고성능, 고효율 모바일 PC인증 제도인 '인텔 Evo 플랫폼(Intel® Evo™ Platform)' 인증도 획득했다.
또 '성능 최적화 모드(Intelligent Performance Manager)'를 추가해 노트북 사용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성능과 팬 소음, 배터리 사용량 등을 조절해준다. 이를 통해 하루 종일 버벅거림 없이 최적화된 환경에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퀵 서치(Quick Search)' 기능도 추가했다. 키워드만으로도 노트북의 모든 문서와 파일, 폴더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아울러 갤럭시 북 프로 360의 경우, S펜이 호환돼 사용성을 대폭 끌어올렸다. 함께 제공하는 S펜의 두께와 길이를 기존 대비 각각 2.5배, 1.4배 키워, 실제 펜처럼 편안하게 잘 쓸 수 있게 했다. 또 4096단계 필압을 지원해 정교한 표현이 가능하며, 별도의 충전도 필요 없다. S펜으로 창작 활동하는 모습을 '펜업(PENUP)' 커뮤니티로 공유도 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다양한 갤럭시 기기들과의 연동성도 높였다.
'Windows에 연결하기'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용자 휴대폰(Your Phone)' 앱 통합을 통해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에서 최대 5개의 스마트폰 앱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 무선이어폰 등을 스마트폰과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에서 빈갈아가며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쉬운 블루투스 연결' 기능도 지원한다. 음악이나 영상을 재생하는 기기를 변경할 때마다 무선 이어폰의 설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스마트폰 기능도 대거 적용...IoT 콘트롤러 역할도 갤럭시 북 시리즈는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스위치(Smart Switch)' 기능을 노트북에서 지원한다. 갤럭시 북 스마트 스위치를 통해 이전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이나 영화, 파일, 앱, PC 설정을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 전송 파일의 크기와 예상 소요 시간, 전송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네트워크 연결이나 계정 로그인 없이 몇 번의 터치만으로 여러 파일 또는 폴더 전체를 갤럭시 기기간 쉽고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어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퀵 쉐어(Quick Share)'도 지원한다.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는 노트북 최초로 스마트싱스(SmartThings)와의 연동을 통해 노트북이 스마트 홈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에서 스마트싱스 앱을 사용하면 집 안의 불을 끄거나, 온도를 바꾸거나, 주방 가전을 제어할 수 있다.
스마트싱스 파인드(SmartThings Find) 서비스에 접속하면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갤럭시 스마트 태그 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사용자가 음성 명령만으로 갤럭시 북 프로의 스마트싱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AI 플랫폼 '빅스비'도 추후 지원할 예정이다.
rim@heraldcorp.com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428001183

서울신문

초경량 노트북...역대 첫 '삼성 노트북 언팩'서 공개

IT_과학>모바일 | IT_과학>콘텐츠 2021-04-28 한재희

기사원문 ★스크랩 뉴스듣기 가 가

모습 드러낸'갤럭시북 프로' 시리즈 신제품 2종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노트북 언팩'을 열고 역대 자사 제품 중 가장 얇고 가벼운 노트북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노트북 언팩'을 열고 역대 자사 제품 중 가장 얇고 가벼운 노트북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28일 밤 11시부터 1시간가량 온라인으로 진행된 '삼성 갤럭시 언팩(공개행사) 2021'을 통해 노트북 신제품인 '갤럭시북 프로' 시리즈 2종을 공개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IM)에서는 그동안 언팩에서 스마트폰이나 무선이어폰, 스마트워치 등을 주로 공개했는데 노트북을 대상으로 한 언팩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선 노트북 점유율 1위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손위권 밖인 삼성전자가 '비대면 트렌드' 덕에 크게 성장중인 노트북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 노트북 제품군을 강화해 '갤럭시 생태계'에 이용자들을 단단히 묶어두겠다는 전략이기도 하다.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은 이날 행사에 등장해 "'갤럭시북 프로' 시리즈는 초슬림·초경량 디자인, 강력한 성능, 갤럭시 기기와의 유기적인 연동을 통해 언제나 연결된 세상을 위한 진정한 모바일 컴퓨터"라고 소개했다.
'갤럭시북 프로' 13.3인치 모델은 역대 삼성 '갤럭시북' 시리즈 중 가장 얇은 두께(11.2㎜)와 가장 가벼운 무게(868g)를 지녔다. 노트북 화면이 360도 돌아가는 '갤럭시북 프로 360'도 13.3형 모델의 두께가 11.5㎜, 무게는 1.04kg로 줄여 휴대성을 극대화했다. 그러면서도 두 제품은 주요 항공우주 제조사에서 비행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알루미늄 5000'과 '6000' 시리즈가 사용돼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을 끌어올렸다.
두 제품 모두 손가락 터치(접촉)로 작동이 가능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갤럭시북 최초로 적용됐다. '갤럭시북 프로 360'에는 휴대용 필기구인 'S펜'이 함께 제공되는데 두께와 길이가 기존 대비 각각 2.5배, 1.4배 커졌다. 360도로 화면을 젖혀 태블릿처럼 형태를 만든 뒤 필기할 수 있다.
'갤럭시북 프로 360'은 세부 옵션에 따라 181만~274만원, '갤럭시북 프로'는 130만~251만원에 출시됐다. 국내에서는 29일 사전 판매를 시작해 다음달 14일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28500196

기사 검색

헤럴드경제

10년 만에 '호황' 노트북 대전 불붙었다

IT_과학>모바일 | 경제>유통 | 경제>반도체 2021-04-26 박혜림1 기자

기사원문 ★ 스크랩 뉴스 듣기 가 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노트북 시장이 수혜를 보고 있다. 언택트(비대면) 사회가 가속화 되며 노트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노트북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노트북 시장이 수혜를 보고 있다. 언택트(비대면) 사회가 가속화 되며 노트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노트북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에 따른 관련 수요가 늘며, 노트북 시장은 10년만에 역성장세를 벗어났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지난해 노트북PC의 판매량은 가파르게 올라, 전년(1억7230만대) 대비 32% 증가한 총 2억2680만대가 판매됐다. 올해도 두자릿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다음달께 2021년형 'LG 그램 15'를 출시한다. 기존 14·16·17형에 이어 15형대 제품을 추가로 선보이며 화면 크기별로 촘촘한 라인업을 갖춘다.
LG 그램 15는 앞서 출시된 16:10 화면비의 제품들과 달리 16:9 화면비의 15.6형 FHD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16:9 화면비에 익숙한 고객들의 수요도 충족시키겠단 의도에서다. 여기에 초슬림 베젤과 퍼펙트 히든 힌지를 적용, 기존 그램 15형과 비교해 콤팩트한 디자인을 구현했다.
1120g의 무게에 80와트시(W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사용 편의성도 높였다. 또 최신 인텔 11세대 프로세서 타이거레이크(Tiger Lake)를 적용해 기존 10세대 프로세서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가 약 20% 빨라졌다.
여기에 인텔의 내장 그래픽 프로세서 아이리스 엑스이(Iris Xe)를 장착해 고화질 영상 작업 및 게임 구동 시 빠른 속도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LG전자는 또 올해 새롭게 선보인 투인원(2 in 1) 노트북 '그램 360'에 새로운 색상도 투입한다. 14형 제품에는 '옵시디안 블랙', 16형에는 '쿼츠 실버' 색상을 더한다. LG전자는 지난 2월 '그램 360' 출시 당시 14형은 '토파즈 그린', 16형은 '옵시디안 블랙' 색상의 제품만 출시한 바 있다.
LG전자가 잇따라 노트북 라인업을 확장하는 이유는 노트북 시장의 성장세와 무관치 않다. 김선형 LG전자 한국영업본부 HE마케팅담당은 "이번 라인업 확대로 고객은 본인의 사용환경이나 색상 등 디자인 선호도에 따라 'LG 그램'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코로나 19로 인해 성장하고 있는 노트북 시장에서 주도권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도 노트북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노트북 언팩(신제품 공개행사)'를 연다. '갤럭시 언팩: 가장 강력한 갤럭시가 온다(The most powerful Galaxy is coming)'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는 28일 온라인을 통해 노트북과 태블릿PC의 중간 형태인 갤럭시 북 프로·프로 360 등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될 갤럭시 북 프로는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 이온 라인업의 후속 제품으로 추정된다. 또 갤럭시 북 프로 360은 갤럭시 북 플렉스 시리즈 후속작으로 알려졌다.
갤럭시 북 프로는 13인치, 갤럭시 북 프로 360은 15인치 크기로 출시된다. 프로 모델이 전통적인 노트북PC 폼팩터(형태)라면, 프로 360 모델은 360도로 접을 수 있는 터치 패널과 S펜을 적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두 모델 모두 인텔 11세대 프로세서(i3·i5·i7) 프로세서를 탑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13인치 모델은 통합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 카드, 15인치 모델은 Nvidia MX450 외장 GPU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박혜림 기자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426000434

아시아경제

"선택의 폭 넓힌다" LG전자, 'LG 그램' 라인업 확대

IT_과학>모바일 | IT_과학>콘텐츠 | 경제>유통 2021-04-25 구은모

기사원문 ★ 스크랩 뉴스 듣기 가 가

5월 2021년형 'LG 그램 15' 출시 예정 투인원(2 in 1) 노트북 '그램 360'의 색상 라인업도 늘려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LG전자가 다양한 크기와 색상의 'LG 그램(gram)'을 선보이며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힌다.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LG전자가 다양한 크기와 색상의 'LG 그램(gram)'을 선보이며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힌다.
LG전자는 다음달 2021년형 'LG 그램 15'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14·16·17형에 이어 15형대 제품을 추가로 선보이며 화면 크기별로 촘촘한 라인업을 갖추게 된다.
LG전자는 신제품에 올해 앞서 선보인 16:10 화면비의 제품들과는 달리 16:9 화면비의 15.6형 FHD(1920x1080)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 기존의 16:9 화면비에 익숙한 고객들의 니즈도 만족시켰다. 여기에 초슬림 베젤과 퍼펙트 히든 힌지를 적용해 기존 그램 15형과 비교해 콤팩트한 디자인을 구현했다.
'LG 그램 15'는 1120g의 가벼운 무게에 80와트시(W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사용 편의성이 높다. 또 최신 인텔 11세대 프로세서 타이거레이크(Tiger Lake)를 적용해 기존 10세대 프로세서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가 약 20% 빨라졌다. 또 인텔의 내장 그래픽 프로세서 아이리스 엑스이(Iris Xe)도 장착해 고화질 영상 작업 및 게임 구동 시 빠른 속도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투인원(2 in 1) 노트북 '그램 360'의 14형 제품에 '옵시디안 블랙', 16형에 '쿼츠 실버' 색상을 추가하며 색상 라인업도 늘린다. 지난 2월 '그램 360' 출시 당시 14형은 '토파즈 그린', 16형은 '옵시디안 블랙' 색상을 출시한 바 있다.
'그램 360'은 고객의 상황에 따라 노트북, 태블릿 모드 등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문서 작업이나 영상 편집 등 키보드를 사용할 때는 노트북 모드로 사용하고, 영상 콘텐츠를 즐기거나 펜을 활용할 때는 태블릿 모드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LG전자는 5월 한 달간 '더 큰 그램이 더 크게 드리는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 기간 구매 고객에는 노트북 파우치, 게이밍 헤드셋, 커블체어 등을 추가로 증정한다.
김선형 LG전자 한국영업본부 HE마케팅담당은 "이번 라인업 확대로 고객은 본인의 사용환경이나 색상 등 디자인 선호도에 따라 'LG 그램'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코로나19로 인해 성장하고 있는 노트북 시장에서 주도권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42509514849136

기사 검색

서울경제

[잇써보니]'갤럭시 북 프로' "태블릿 급 휴대성에 스마트폰 DNA 그대로 이식"

IT_과학>모바일 | IT_과학>콘텐츠 | IT_과학>보안 2021-05-03 | 노현섭 기자

기사원문 ★스크랩 뉴스 듣기 가 가

태블릿 영역 넘보는 휴대성...868g 무게에 11mm대 두께

삼성전자(005930)가 언팩(공개) 행사까지 열며 힘을 실은 '갤럭시 북 프로'(13.3형)를 직접 사용해 본 결과 LG전자(066570) '그램'과 애플 '맥북'의 장점들만 뽑아낸 노트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삼성전자(005930)가 언팩(공개) 행사까지 열며 힘을 실은 '갤럭시 북 프로'(13.3형)를 직접 사용해 본 결과 LG전자(066570) '그램'과 애플 '맥북'의 장점들만 뽑아낸 노트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애플이 신형 아이패드 프로를 선보이며 노트북 시장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에서 갤럭시 북 프로는 진정한 모바일 컴퓨터로 태블릿 영역까지 확장하려는 의지가 담겨있어 보였다. 태블릿PC 정도의 무게감에 다양한 갤럭시 기기와의 연동성까지 완성돼 프리미엄 노트북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제대로 된 '무기'를 장착한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 북 프로를 들었을 때 "정말 얇고 가볍다"라는 첫 느낌이 전해졌다. 무게는 868g으로 같은 디스플레이 크기 기준의 LG전자 그램(900g대) 보다 가볍다. 태블릿인 아이패드 프로 4세대(12.9형)의 묵직한 무게감과도 확실히 달랐다. 아이패드 프로의 무게는 641g(Wi-Fi 모델)으로 여기에 애플의 매직키보드(710g)를 더하면 맥북 에어(1.29kg)의 무게를 뛰어 넘는다. 갤럭시 북 프로와 같이 동봉된 파우치에 넣고 하루 정도 들고 다녀봤지만 무게감으로 인한 부담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두께도 11mm대로 역대 갤럭시 북 시리즈 중 가장 슬림했다. 두께만 본다면 태블릿 디스플레이와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였다.
노트북 중 처음으로 기본 제공되는 USB-C 타입의 범용 충전기(65W)도 크기는 기존 대비 절반, 무게는 30% 가량 줄인 167g에 불과했다. 노트북 본체와 함께 휴대해도 부피와 무게에 대한 아쉬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외장 재질은 가벼운 무게감과 달리 주요 항공우주 업계가 사용하는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해 견고함을 갖췄다.
지문 인식 기능이 있는 갤럭시 북 프로의 전원 버튼을 눌러 켰다. 현재 기자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스마트폰 환경이 그대로 이식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디스플레이는 그동안 갤럭시S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에 사용됐던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가 갤럭시 북 최초로 탑재됐다. 액정표시장치(LCD) 대비 뛰어난 색 표현 영역과 명암비로 보다 생생하고 자연스런 화질을 만들어 냈다. 다만 'WQXGA 고해상도 IPS' 와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 등 경쟁 제품들과 비교할 때 압도적 화질이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다.
구동 시스템 뿐만 아니라 실제 기능도 스마트폰의 중요 기능을 그대로 재현해 낸다. '사용자 휴대폰' 메뉴를 통해 갤럭시 스마트폰과 연결하면 스마트폰의 모든 알림과 전화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 내 사진을 노트북에서 바로 편집을 할 수 있고, 최대 5개의 스마트폰 앱을 동시에 팝업 창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다. 스마트폰 외에도 태블릿과 무선 이어폰 등 다양한 갤럭시 기기와 마치 하나의 기기처럼 매끄럽게 연동됐다. 태블릿의 경우 '세컨드 스크린' 메뉴를 통해 태블릿을 또 하나의 모니터로 활용할 수도 있다. 애플이 자랑하는 애플 기기와의 연동성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완성도 높은 갤럭시 만의 생태계가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가위식 매커니즘을 적용한 키보드도 부드럽고 조용한 키감을 제공했다. 여기에 키 스트로크 길이를 1.5mm에서 1.0mm로 줄여 타이핑 속도를 높였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7TG6RCD

서울신문

삼성·LG·애플의 'PC 맞대결' 더 치열해진다...야심작 속속 출시

IT_과학>모바일 2021-04-30 | 한재희

기사원문 ★스크랩 뉴스 듣기 가 가

경쟁 가속화되는 'PC 3파전'

삼성전자와 LG전자, 애플이 제각기 PC 신제품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며 치열한 맞대결을 예고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애플이 제각기 PC 신제품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며 치열한 맞대결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8일 사상 첫 노트북 언팩(공개행사)인 '삼성 갤럭시 언팩 2021'를 개최하고 '갤럭시북 프로'와 '갤럭시북 프로360'을 공개했다. 본래 삼성전자는 언팩 행사에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태블릿, 무선이어폰 등을 공개했는데 처음으로 노트북 신제품을 위한 언팩을 연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요'가 여전한 가운데 가파르게 성장중인 PC 시장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갤럭시북 프로' 13.3인치 모델은 역대 삼성 '갤럭시북' 시리즈 중 가장 얇은 두께(11.2㎜)와 가장 가벼운 무게(868g)를 지녔다. 노트북 화면이 360도 돌아가는 '갤럭시북 프로 360'도 13.3인치 모델의 두께가 11.5㎜, 무게는 1.04kg로 줄여 휴대성을 극대화했다. 그러면서도 두 제품은 주요 항공우주 제조사에서 비행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알루미늄 5000'과 '6000' 시리즈가 적용돼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을 한껏 끌어올렸다.두 제품 모두 손가락 터치(접촉)로 작동이 가능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갤럭시북 최초로 적용됐다. '갤럭시북 프로 360'에는 휴대용 필기구인 'S펜'이 함께 제공되는데 두께와 길이가 기존 대비 각각 2.5배, 1.4배 커졌다. 360도로 화면을 젖혀 태블릿처럼 형태를 만든 뒤 필기할 수 있다.
'갤럭시북 프로 360'은 세부 옵션에 따라 181만~274만원, '갤럭시북 프로'는 130만~251만원에 나왔다. 국내에서는 14일 정식 출시되다.지난 1~2월에 신형 'LG그램'과 'LG그램 360'을 출시한 LG전자는 이번달에 'LG그램 15'를 신규 출시해 제품군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14, 16, 17인치형 제품이 있었는데 15인치대 제품을 추가하는 것이다. 기존 제품들이 16대10 화면비율이었는데 이번에는 16대9 화면비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최신 인텔 11세대 프로세서 '타이거레이크'를 적용해 기존 10세대 프로세서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약 20% 빨라졌다.애플은 자체 개발한 중앙처리장치(CPU)인 'M1' 칩셋을 탑재한 아이맥, 맥북프로, 맥북에어를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이미 129만원부터 시작하는 맥북에어와 169만원부터 시작하는 맥북프로를 출시했다. 그동안 사용하던 인텔칩을 제쳐두고 PC에 처음으로 M1칩을 적용한 것인데 우려와 달리 PC 사용환경이 안정적이고 전작보다 성능도 크게 개선됐다는 호평을 받았다. 맥북에어는 가성비(가격대비 성능)가 좋다는 평가가 나왔고, 맥북프로는 큰 용량의 영상을 편집할 때도 별다른 버벅거림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단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달 21일 출시한 아이맥 신제품에도 M1 칩셋이 적용됐다. M1 덕분에 전력 소모가 적으며 기존 제품 대비 소음도 현저히 감소했다. 두께는 11.5㎜에 불과해 날렵한 디자인을 지녔다. 색상은 7가지로 나왔다. 기존 21.5인치 아이맥 대비 CPU 성능이 최대 85% 빠르다. 7코어 GPU 모델은 169만원부터, 8코어 GPU 모델 가격은 194만원부터 판매된다. 아이맥은 미국에서 이달 중순쯤 출시되지만 한국 출시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42509514849136

기사 검색

아시아경제

"노트북도 스마트폰처럼" 갤럭시 생태계 연결하는 삼성

IT_과학>모바일 | IT_과학>콘텐츠 | 경제>반도체 2021-04-29 | 차민영

기사원문 ★ 스크랩 뉴스 듣기 가 가

삼성 온라인 언팩 행사서 노트북 신제품 공개 윈도우·안드로이드 협업 사용자 휴대폰 앱 통합 스마트 가전과도 연결 스마트홈 허브 역할도 가능

갤럭시북 제품 사양 (자료: 삼성전자)

분류	갤럭시북 프로	갤럭시북 프로 360
화면	13.3 · 15.6인치 AMOLED 디스플레이	13.3 · 15.6인치 슈퍼 AMOLED 디스플레이
무게	0.87~1.15kg	1.04~1.39kg
CPU	인텔 11세대 프로세서	
GPU	인텔 내장그래픽 또는 엔비디아 지포스 MX450	인텔 내장그래픽
저장 용량	8/16/32GB(램), 최대 1TB(SSD)	
색상	미스틱블루 · 실버 · 핑크골드	미스틱네이비 · 실버 · 브론즈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새 모바일 컴퓨팅 경험을 구상하면서 왜 노트북은 더 스마트폰과 유사해질 수 없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답은 우리 앞에 놓인 '갤럭시 경험'이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새 모바일 컴퓨팅 경험을 구상하면서 왜 노트북은 더 스마트폰과 유사해질 수 없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답은 우리 앞에 놓인 '갤럭시 경험'이었습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이 28일(한국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한 '삼성 갤럭시 언팩(신제품 공개)' 행사에서 노트북 신제품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갤럭시 경험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태블릿 PC, 스마트 가전, 스마트 액세서리를 연결하는 갤럭시 생태계의 확장과 맞닿아 있다.
이 자리에서는 새 노트북 신제품 '갤럭시 북 프로·프로 360'이 공개됐다. 삼성전자가 노트북 단독 언팩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 50여분간 전세계로 생중계된 언팩 행사에는 노 사장을 비롯해 11명의 연사가 등장했다.
윈도우-안드로이드 뭉쳤다
특히 주목할 것은 윈도우(노트북)와 안드로이드(스마트폰) 운영체제 간 밀접한 협업이 이뤄진 부분이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윈도우 운영체제를 운영하는 파트너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 등과 긴밀히 협업했다. 연사 11명 중 3명이 MS, 인텔 등 파트너사 관계자였다. 노 사장은 "처음으로 안드로이드와 윈도우가 완벽하게 합쳐졌다"고 평가했다.
갤럭시 북 프로에서 갤럭시 생태계도 구현됐다. 가령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에서는 '윈도우에 연결하기'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용자 휴대폰' 앱 통합을 통해 최대 5개의 스마트폰 앱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문자를 보내거나 캘린더 앱에서 일정을 확인하고 게임도 즐길 수 있다. '퀵 서치'나 '퀵 쉐어', '스마트 스위치' 등도 노트북 최초로 지원한다.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는 노트북 최초로 스마트 가전과도 연결된다. 노트북 최초로 '스마트싱스(SmartThings)' 앱과의 연동을 통해 노트북이 스마트홈 허브 역할도 맡았다. 소비자는 스마트싱스 앱을 통해 집 안의 불을 끄거나 온도를 바꿀 수 있다. 주방 가전 제어도 가능하다.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갤럭시 스마트 태그 위치도 확인할 수도 있다. 향후 인공지능(AI) 플랫폼 '빅스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생태계를 강조하는 이유는 스마트폰 업계 맞수인 애플에 대적하기 위해서다. 애플은 iOS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 애플워치 등을 아우르는 심리스(끊김 없는) 경험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아왔다. 애플의 심리스 체계가 강화되면서 충성 고객층도 늘었다.
두께 11.2㎜ 하드웨어 혁신도
스마트폰의 연결성뿐만 아니라 PC 특유의 강력한 성능도 갖췄다. 갤럭시 북 프로는 클램쉘(조개) 모양의 평범한 디자인이지만 역대 가장 얇은 두께를 자랑한다. 13.3형 모델은 11.2㎜ 두께에 무게는 868g이다. 삼성전자 글로벌 기업전략담당 찰스 맥캐런은 "갤럭시 북 프로는 갤럭시 북 시리즈 중 가장 얇은 노트북으로 스마트폰보다 더 얇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갤럭시 북 최초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도 탑재하고 인텔리전트 컬러 엔진도 탑재해 자동 색 보정을 강화했다. AKG 스피커를 탑재하고 '돌비 애트모스' 기능을 갖췄다. 불필요한 주변 소음을 제거해주는 '인텔리전트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지원한다. 65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USB-C 타입 범용 충전기를 제공해 휴대성을 높이고 쓰레기 배출량은 줄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노트북 시장이 커진 것도 삼성전자가 노트북 시장에 관심을 갖는 배경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노트북 시장은 32% 성장했다. 시장조사기관 카날리스는 올해 글로벌 PC 출하량이 전년 대비 8% 늘어난 총 4억9680만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노트북과 태블릿 PC는 각각 9.4%, 8.3% 성장해 데스크톱(4.4%) 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공식 출시일인 다음달 14일에 앞서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2일 동안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를 사전 판매한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갤럭시 북 프로360과 갤럭시 북 프로 구매 후 한 달간 사용 후 반납할 수 있는 '갤럭시 북이랑 한 달 살기'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제품을 구매하고 기존 PC 반납 시 중고 매입 시세에서 최대 15만원을 추가 보상해주는 '갤럭시 북 트레이드인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42909093518330

동아일보

[리뷰] '무거운 짐진 외근자들아, 내게 오라' - 레노버 '씽크패드 X1 나노' 노트북

경제>산업_기업 | IT_과학>모바일 | 경제>반도체 2021-03-11 | 이문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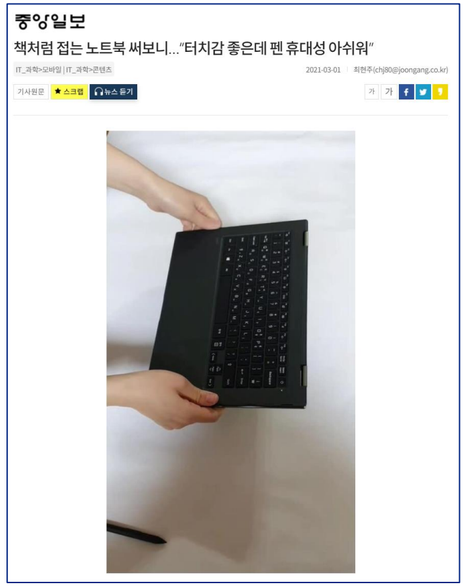
기사원문 ★ 스크랩 뉴스 듣기 가 가

시간이 흐르고 기술이 발전해도 노트북의 기본 덕목은 여전히 '이동성, 휴대성'이다. 최근에는 화면 큰 고성능 노트북(주로 게임용)이 데스크탑을 대체하기도 하지만, 크고 무거운 만큼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긴 어렵다. 어쨌든 노트북은 가벼운 게 우선이다.

시간이 흐르고 기술이 발전해도 노트북의 기본 덕목은 여전히 '이동성, 휴대성'이다. 최근에는 화면 큰 고성능 노트북(주로 게임용)이 데스크탑을 대체하기도 하지만, 크고 무거운 만큼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긴 어렵다. 어쨌든 노트북은 가벼운 게 우선이다.
가벼운 노트북이 가장 절실한 이들은 역시 외부 활동이 잦은 (우리 같은) 외근자들이다. 이들의 백팩에는 노트북을 비롯해 온갖 비즈니스 관련 제품이 들어가고, 특히 여성 사용자라면 백팩보다 작은 메신저백 등 작은 가방을 선호하는 터라 무게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어쨌든 노트북은 가벼워야 한다.
전 세계에서 PC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레노버의 대표 노트북, '씽크패드' 제품군, 그 중에서도 상위급 모델인 'X1' 시리즈, 또 그 중에서도 '나노' 모델은 노트북의 기본 덕목에 대단히 충실한 제품이다.
참고로, 씽크패드(ThinkPad)는 올해로 서른 살이 된, 노트북 분야의 전설 같은 브랜드다. IBM이 최초 개발, 생산했다가 2004년 레노버가 그 개발력과 제조기술을 그대로 이어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30년 간 고유의 디자인과 구성을 유지하고 있는, 말 그대로 '역사와 전통'의 노트북이다. 외국/외국계 기업 임직원들이 대부분 씽크패드를 사용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씽크패드 X1 나노는 이름에서 느껴지듯 가벼움이 최강점인 노트북이다. 30년 씽크패드 역사 중에서도 가장 가볍다. 본체 무게는 약 960g이고, 어댑터 무게가 약 310g이다. 본체보다는 오히려 어댑터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만하다.
화면 크기는 13인치(대각선 길이 33센티)로 아담하지만, 2,160 x 1,350 해상도를 지원해 그리 비좁지 않은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전반적인 디자인은 씽크패드 고유의 디자인 요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키보드 중앙에 있는, 씽크패드의 시그니처 '빨콩(트랙포인트)'도 여전하다.
두께도 12mm에 불과하다. 이 정도면 탈부착 키보드를 붙인 태블릿PC 못지 않다. 다만 두께가 이리 얇으니 본체 좌우측 면의 입출력 단자가 비교적 간소할 수 밖에 없다. 좌측면의 USB-C 단자 2개와 이어폰 잭이 전부다. USB-C 단자는 썬더볼트4 규격을 지원한다.
USB-C 단자 하나에 충전 어댑터를 연결한다면, USB 단자는 하나 밖에 없는데, USB-C 형태다 보니 일반 USB 마우스나 USB메모리/외장하드는 연결할 수 없다(USB to USB-C 젠더를 끼우면 되지만). 따라서, 마우스는 블루투스 권장이다.
참고로, X1 나노처럼 얇은 노트북에 활용할 수 있는 확장 허브를 마련하는 것도 좋다. USB-C 단자에 연결하면, HDMI 출력, USB-C 또는 일반 USB 연결, SD메모리/마이크로SD 카드 장착 등이 가능해 진다.
씽크패드 모델이 응당 그렇듯, 화면은 180도 완전히 젖혀지니 어떤 환경, 어떤 자세에서도 화면을 편한 각도로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비행기, 버스 실내 같은 좁은 공간에서 제법 요긴하다.
씽크패드는 또한 특유의 키보드 키감으로도 오랜 팬들에게 각인돼 있다. 노트북 키보드로서 또박또박 정확한 키감과 찰진 타건감은 30년 동안 한결 같다. 이 리뷰도 그 키감을 충분히 만끽하며 작성하고 있다.
중앙의 '빨콩'은 사용해본 자만이 공감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터치패드의 크기/공간적 사용 한계를 극복하면서, 타이핑과 마우스 포인트 조작을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게 한다.
하나 언급할 건, 13인치 크기 노트북이다 보니 키보드의 캡 크기가 다소 작아, 타이핑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전까지 오타를 찍을 가능성이 더러 있다는 점이다. 키보드 가장자리(베젤)을 최대한 줄이고 키캡을 조금이라도 키웠으면 어땠을까 싶다(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을 터). 키보드 아래 터치패드와 지문인식 센서가 있다.
타이핑 시 손목이 닿은 부분(팜레스트)이나 커버 등 본체 재질이 탄소 섬유(카본 파이버) 소재라, 무엇보다 지문이나 손자국이 심하게 묻지 않으니 좋다. 촉감은 부드러운데, 표면은 단단해서 일상 흠집/스크레치에도 강할 것 같다. (손톱으로 힘주어 긁어도 흔적이 거의 안남는다. 본체 프레임은 마그네슘 합금이다.)
작고 가벼운 노트북이라 해서, 전반 성능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X1 나노에는 인텔 '신상' 11세대 (타이거레이크) 프로세서 중 상위 모델인 i7-1160G7이 장착됐다. 고급 노트북답게 메모리는 16GB를 달았고, SSD는 512GB다. 물론 1TB 모델도 있다.
이외에 인텔의 최신 노트북 플랫폼인 '이보(EVO)'도 적용됐다. 이보 플랫폼은 인텔이 인증하는 일종의 노트북 구성 조건인데, 프로세서, 그래픽칩, 배터리, 부팅시간, 배터리 사용시간, 충전시간, 지원 운영체제 등의 일정 조건을 만족한 노트북에 부여된다. 예를 들어, 프로세서의 경우 인텔 11세대 코어 i5 또는 i7만 이보 플랫폼 조건에 해당된다.
일반적인 업무/작업 용도로 문서작업이든 인터넷 검색이든 사진/영상 재생이든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능을 낸다. 인텔 i7 프로세서에 메모리 16GB라면 그럴 만하다. '프로그램을 실행한다'기 보다는 창을 '휙 띄운다'는 느낌이다.
전반적인 성능은 우수하지만, 게이밍 노트북이 아닌 이상 고품질 그래픽 성능을 기대할 순 없다. 인텔의 발표대로, 이전까지의 인텔 내장 그래픽칩보다는 확실히 그래픽 성능이 좋아졌긴 하다. 다만 '배틀그라운드' 같은 고품질 게임을 제대로 즐기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X1 나노는 게임용이 아니니까.
그래도 일반 품질의 온라인 게임이나 PC게임은 그래픽 품질 옵션을 적당히 조정하면 웬만큼 만족할 정도는 보여준다. 가끔 기분 전환 삼아 가벼운 게임을 즐기는 데는 불편 없으리라 예상한다.
씽크패드 X1 나노를 며칠 간 사용하며 절실히 느낀 점은, '그동안 백팩 무게로 몸을 많이 혹사시켰구나'하는 자각이다. 역시 우리 같은 '무거운 짐진 자'들에겐 이처럼 가벼운 노트북이 그저 축복이고 은총이다. 배터리 사용시간도 은근히 길어서 완전 충전하면 하루 일과는 거뜬히 버틴다. 하루 중 대부분을 외부에서 활동하는, 더구나 백팩을 늘 양쪽 어깨로 메야 하는 직장인이나 프리랜서, 대학생 등에게 가장 적합한 노트북이라 평가한다.
씽크패드 X1 나노의 가격은 현재 180만 원 대며(SSD 512GB), 함께 사용하면 요긴한 7-in-1 확장 허브(5만 원대), X1 프리젠터 마우스(10만 원대), X1 ANC 헤드폰(22만 원대), 씽크비전 M14t 외장 모니터(39만 원대) 등은 모두 별매 제품이다. X1 나노를 구매할 예정이라면, 이들 중 확장 허브만큼은 함께 구매하길 권장한다.
동아닷컴 IT전문 이문규 기자 munch@donga.com
닫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311/105840133/1

기사 검색


중앙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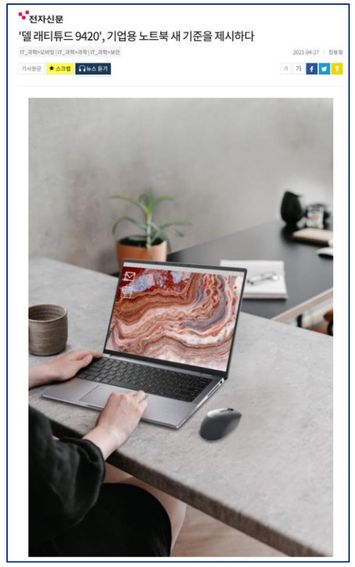
책처럼 접는 노트북 써보니…"터치감 좋은데 펜 휴대성 아쉬워"

IT_과학>모바일 | IT_과학>콘텐츠 2021-03-01 최현주(chj80@joongang.co.kr)

기사원문 ★ 스크랩 뉴스 듣기 가 가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워너비'(가지고 싶은 물건)로 떠오른 제품 중 하나가 노트북이다.
노트북만 있으면 집에서 일을 하고, 영화도 보며 게임도 즐긴다. 노트북과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새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노트북 시장이 커진 이유다.
LG전자가 내놓은 신제품인 '그램360'은 이전 제품하고는 확 다른 점이 있다. 태블릿 기능을 더한 투인원 제품이라는 점이다. 레노버·휼렛패커드(HP)·델 등은 이미 2018년부터 투인원 노트북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도 지난해 출시했다.
지난 22일 출시된 그램360(14인치)을 살펴보니 일반 노트북과 생김새는 같았다. 그런데 화면을 뒤로 360도 넘겨서 반으로 접을 수 있다. 책처럼 접어보니 태블릿 모드로 바뀌었다.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사용했다. 영어강의 동영상을 보면서 전용펜으로 필기가 가능했다.
360도 회전이 되니 텐트처럼 세워놓고 영화를 봤다. 좁은 공간에 세워두니 공간 활용도가 높았다.
화면 크기는 일반 노트북과 비슷하다. 대개 노트북의 화면 크기는 13.3인치부터 시작하는데 그램360은 14인치와 16인치 두 가지 모델이 있다. 화면 상단 중앙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책처럼 접었을 때도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다. 비슷한 형태의 투인원 제품 중엔 카메라가 화면 하단에 있는 제품도 있다.
한눈에 보일 정도로 구동 속도가 빨랐다. 새 제품이기도 하지만, 인텔 11세대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어서다. 전문적인 그래픽 작업을 할 정도로 고사양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영상 편집이나 웬만한 그래픽 툴을 실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양이다. i5 이상 CPU를 지원하지만 i3 모델도 있다. 해상도는 풀HD 1920×1080으로 높다.
LG 그램은 '1kg을 넘지 않는 가벼움'을 앞세운 시리즈다. 다른 업체의 비슷한 제품보다 여전히 가볍지만, 그램360은 기존 그램 시리즈보다 300g 정도 무겁다. 14인치가 1.25kg(16인치 1.4kg)이고, 두께도 다소 두꺼워진 1.67㎝다. 대신 전원을 꽂지 않고 10시간 이상 영상편집 등 작업을 할 수 있는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됐다. 14인치의 배터리가 72Wh(16인치 80Wh)다.
아쉬운 점은 비슷한 형태의 제품들이 지적받았던 필압감이다. 꾹꾹 누르지 않고 살짝 끄적여도 인식했지만, 펜을 기울여서 쓰면 인식률이 떨어졌다. 펜으로 필기하는 도중에는 화면에 손이 닿아도 오류가 없었지만, 펜을 떼면 손가락이 살짝 닿아도 인식해 오타가 생겼다.
펜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다른 업체는 펜을 내장형으로 만들거나 펜을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를 제공한다.
가격은 다른 업체 제품과 비슷한 수준이다. 14인치(i5·8GB·256GB 기준)가 209만원, 16인치가 224만원이다. 김선형 LG전자 한국HE마케팅담당은 "투인원 노트북 시장도 대화면이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대화면에 휴대성을 겸비한 제품으로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4002046


전자신문

'델 래티튜드 9420', 기업용 노트북 새 기준을 제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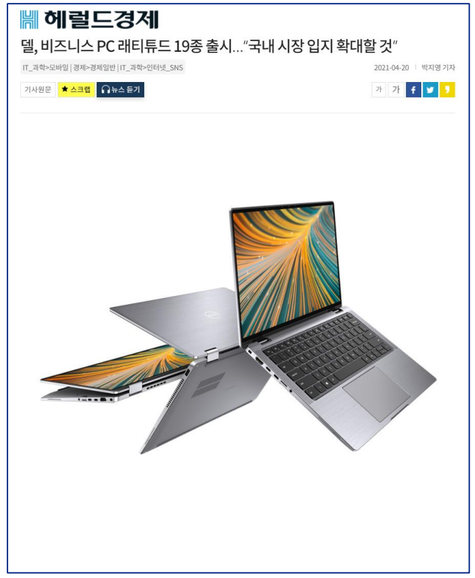
IT_과학>모바일 | IT_과학>PC 2021-04-27 정용철

기사원문 ★ 스크랩 뉴스 듣기 가 가

한국 델 테크놀로지스(Dell Technologies)가 '델 래티튜드' 노트북 신제품을 출시, 기업용 노트북 새 기준을 제시한다. 강력한 하드웨어(HW) 성능은 물론 사용자 근무환경을 분석해 최적 성능을 지원하는 스마트 기능으로 하이브리드 근무환경에 독보적 경쟁력을 자랑한다.
한국 델 테크놀로지스는 기업용 노트북 '델 래티튜드(Dell Latitude) 9420'을 공식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델 래티튜드 9420은 16대10 화면비로 더 넓은 시야를 지원하는 14형 기업용 노트북이다. 비즈니스 4면에 인피니티 에지 기술이 적용돼 베젤 두께가 얇고 풀HD+(1920×1280) 해상도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다. 인텔 아이리스Xe 그래픽 사양에 인텔 이보 플랫폼 기반 11세대 인텔 코어 v프로세서를 장착해 강력한 HW 사양을 자랑한다.
이 제품의 진정한 경쟁력은 사용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생산성을 높이는 '스마트 솔루션'에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원격근무, 영상회의 등 비대면 환경이 커지면서 노트북 역할은 더욱 커졌다. 직장과 집을 오가는 하이브리드 업무환경에서도 강력한 연결성과 사용자 간 협업 도구를 얼마만큼 지원하느냐가 노트북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델 래티튜드 9420은 이런 요구사항을 담아 유연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사용자 간 협업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개발됐다.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기반 내장형 소프트웨어(SW) '델 옵티마이저'는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 동작을 학습해 시스템을 구동하는데 최적화된 상태로 자동 설정한다. 특히 델 옵티마이저의 '익스프레스 리스폰스' 기능은 사용 패턴에 따라 지능적으로 앱 성능을 최적화해 실행속도, 구동 성능, 전환 속도를 높인다.
또 '익스프레스 차지 2.0' 기능은 사용자 배터리와 시스템 데이터 사용 패턴을 학습해 지능적으로 배터리 성능을 향상하고, 40분 만에 최대 80%까지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
원격근무 환경에 최적화한 기능도 차별화 요소다. 카메라 센싱 기술을 적용한 '델 익스프레스 사인-인 2.0'은 사용자가 손을 대지 않아도 기기 얼굴을 인식해 안전하고 간편한 로그인을 지원한다. '익스프레스커넥트' 기능은 원격회의 시 최적 대역폭을 자동으로 설정해 접속 끊김 현상을 막는다. 여기에 지능적인 배경 소음 차단과 음소거 기능을 제공해 사용자가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소통을 지원한다.
델 래티튜드 9420은 인텔 비주얼 센싱 기술을 세계 최초로 탑재한 노트북이기도 하다. 자동 화면 잠금과 켜짐 기능을 제공하고, 자동으로 노이즈를 제거해 최적 톤으로 보정하는 카메라도 내장했다. 영상회의 앱과 동기화해 카메라를 사용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구분해 작동하는 자동 웹캠 셔터 '세이프셔터' 기능도 업계 최초로 탑재됐다.
델 테크놀로지스는 지난해 노트북, 데스크톱, 모니터, 주변기기 등 클라이언트 솔루션 비즈니스에서 역대 최대 판매대수(5030만대)와 매출(484억달러)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시장에서도 지난해 델 노트북은 총 7만4000여대가 팔려 전년 대비 56.5%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는 델 래티튜드 9420을 선봉에 내세워 기업용 노트북 시장에서 혁신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해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두형 한국 델 테크놀로지스 전무는 "델 래티튜드 9420은 최고급 비즈니스 노트북으로 스마트한 업무환경을 구현하고 사용자의 생산성을 가장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면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친환경적 소재와 제품에 내재된 보안 기능까지 더해 미래 업무환경에 가장 적합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https://www.etnews.com/20210427000166

기사 검색



헤럴드경제

델, 비즈니스 PC 래티튜드 19종 출시…"국내 시장 입지 확대할 것"

IT_과학>모바일 | 경제>경제일반 | IT_과학>인터넷_SNS

2021-04-20 | 박지영 기자

기사원문 | ★스크랩 | 뉴스 듣기

가 가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한국델테크놀로지스는 20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격근무에 최적화된 제품 라인업 강화를 통해 국내 커머셜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택근무 뿐 아니라 집, 공유 오피스, 외근 등 원격 근무가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에서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각오다.

김경진 한국델테크놀로지스 총괄사장은 "PC(Personal Computer)의 역할이 개인 중심 디바이스에서 소셜, 근무 기능이 강화된 '업무툴'로 이동하고 있다"며 "기업에서 개인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제품을 통해 올해 국내에서도 델의 세계적인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두형 전무는 "2년 안에 국내 커머셜 클라이언트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겠다"며 "제품 뿐 아니라 파트너십 확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무는 제품 라인업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 노트북인 '래티튜드' 모델만 총 19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 전무는 "델의 PC와 노트북은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통해 고객의 사용 습관을 파악하는 '인텔리전트PC'"라고 강조했다.

한국델테크놀로지스는 ▷외근 ▷재택 근무 ▷공유 오피스 ▷회의실 이라는 4가지 테마에 맞춰 제품의 실제 사용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희건 한국테크놀로지스 이사는 "사무실, 거점 오피스, 집 등 업무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디바이스는 사내 구성원이 연결되는 유일한 물리적 접점"이라며 "델은 개선된 하드웨어 성능과 델 옵티마이저, 익스프레스커넥트 등 소프트웨어로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래티튜드'는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비즈니용 노트북이다. 인텔의 최신 프로세서인 타이거레이크 탑재로 성능이 강화됐다. 와이파이6E와 5G WLAN로 더욱 빨라졌다. 안면 인식으로 컴퓨터가 자동 온·오프되고, 상황에 따라 웹캠이 자동으로 개폐된다.

재택 근무 환경에서는 화상회의 모니터(옵티플렉스 7090울트라·3090울트라)가 중심이 된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해 한 번의 터치로 즉시 MS 팀즈 화상회의 접속이 가능하다. USB-C 케이블 1개로 델의 비즈니스용 노트북인 '래티튜드'와 즉시 연결된다.

옵티플렉스 제품은 확대되는 공유오피스에서도 적합한 제품이다. 지저분한 선이 없고 설치가 쉬운 것이 장점이다. 모듈형 데스크톱을 모니터 스탠드 내부 공간이나 모니터 뒤에 장착할 수 있다.

C-시리즈 인터랙티브 터치 모니터는 회의실에서 협업과 생산성을 높여준다. 4~6명 정도가 들어가는 중간 크기의 회의실에 적합하다. USB-C 연결을 통해 별도의 설정 없이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PC와 즉각 화면을 공유할 수 있다.

한편, 델 테크놀로지스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 5030만대의 제품을 판매해 역대 최대 판매대수를 기록했다. 매출은 484억 달러다.

park.jiyeong@heraldcorp.com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420000781

전자신문

삼성, AMOLED 탑재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 출시..모바일 지배력 노트북으로 확장

IT_과학>모바일 | IT_과학>콘텐츠

2021-04-28 | 정용철

기사원문 | ★스크랩 | 뉴스 듣기

가 가

SAMSUNG

Galaxy Book | Pro | Pro 360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프리미엄 노트북 신제품을 공개했다. 삼성은 강력한 디스플레이와 모바일 지배력을 무기로 프리미엄 노트북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28일 삼성전자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11시) '삼성 갤럭시 언팩 2021' 행사를 온라인 개최하고 노트북 신제품을 공개했다. 삼성전자가 노트북 부문에 글로벌 언팩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공개한 제품은 갤럭시 북 프로, 갤럭시 북 프로 360 2종이다. 지난해 12월 갤럭시 북 이온2, 갤럭시 북 플렉스2 등을 출시한 지 약 4개월 만에 또 다른 신제품을 선보인다.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는 최신 인텔 11세대 코어 프로세스와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을 탑재했다. 인텔 고성능, 고효율 모바일 PC 인증 제도인 '인텔 이보(Evo) 플랫폼' 인증도 받았다. 특히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는 모두 11㎜대 두께로 휴대성을 높였다. 13.3형은 두께 11.2㎜, 무게 868g으로 역대 갤럭시 북 시리즈 중 가장 얇고 가볍다. 주요 항공우주 제조사에서 사용 중인 알루미늄 5000, 6000시리즈를 탑재했고 미국 국방부 내구성 표준 검사규격을 통과하는 등 내구성도 강화했다.

노트북으로는 처음으로 AM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 모바일 디스플레이 리더십을 이어간다. 색 표현영역이 디지털영화협회기준(DCI-P3) 120%로 뛰어나고, 인텔리전트 컬러 엔진을 탑재해 보고 있는 콘텐츠에 따라 자동으로 색 영역을 최적화한다.

360도 회전이 가능한 '갤럭시 북 프로 360'은 터치가 가능한 슈퍼 AM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완전히 접어서 태블릿처럼 사용하며 손이나 S펜으로 창작 활동도 가능하다. 텐트처럼 세우고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며 간단한 필기도 할 수 있다.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의 가장 큰 강점은 글로벌 1위에 빛나는 갤럭시 스마트폰과 노트북 간 연결성을 강화해 모바일 사용자경험을 노트북까지 확장했다는 데 있다. 모바일 지배력을 발판으로 노트북 고객 확보에 나섰다.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퀵 서치' 기능이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에도 적용돼 키보드만으로도 노트북의 모든 문서와 파일, 폴더를 빠르게 검색한다. '윈도 연결하기'와 마이크로소프트(MS) '사용자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합해 최대 5개 스마트폰 앱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됐다.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시리즈와 연동도 '빨라졌고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스위치' 기능도 이번 신제품에 첫 적용했다. 이전 노트북에 저장됐던 콘텐츠를 빠르게 전송한다.

삼성 홈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스마트싱스'를 노트북에 최초로 탑재했다. 노트북이 스마트홈 허브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로 스마트싱스 앱을 연동해 집 안의 문을 끄거나 온도 설정, 추방가전 제어까지 가능하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지난해 노트북PC 판매량은 전년(1억7230만대) 대비 32%나 증가한 2억2680만대가 판매됐다. 한동안 고전했던 태블릿PC 역시 지난해 1억8830만대가 판매돼 전년 대비 18%나 성장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원격근무, 영상회의,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국내에서는 노트북PC 시장 1위 기업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순위권 밖에 머무르며 고전한다. 최근 경쟁업체인 LG전자, 애플도 노트북 신제품을 출시하며 프리미엄 노트북 시장 공략을 시도한다.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은 "삼성전자는 소비자의 일상생활에 자유를 더할 새로운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 소통 방식 등 모바일 혁신을 선도해왔다"면서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는 초슬림 초경량 디자인, 강력한 성능, 갤럭시 기기와 유기적인 연동으로 언제나 연결된 세상을 위한 진정한 모바일 컴퓨터"라고 말했다.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는 다음 달 14일부터 전 세계 시장에 출시한다. 한국은 29일부터 사전 판매를 시작한다.

갤럭시 북 프로 360은 15.6형과 13.3형 디스플레이 두 가지 모델에 미스틱 네이비, 미스틱 실버, 미스틱 브론즈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가격은 세부 사양에 따라 181만~274만원이다.

갤럭시 북 프로는 15.6형과 13.3형 디스플레이 두 가지 모델에 미스틱 블루, 미스틱 실버, 미스틱 핑크 골드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가격은 130만~251만원이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https://www.etnews.com/20210428000236

기사 검색

아주경제

[써봤수다] 삼성 노트북 '갤럭시 북 프로 360' 하나로 '문자·통화 너끈'

IT_과학>모바일 | IT_과학>콘텐츠 | IT_과학>보안 2021-05-10 장문기

기사원문 ★스크랩 뉴스 듣기 가 가

13.3인치형 신제품 나흘 사용기...갤럭시 스마트폰과 연동 편리

삼성전자가 지난달 28일 언팩 행사를 통해 공개한 2-in-1 노트북 신제품 갤럭시 북 프로 360과 관련해 기자가 가장 눈여겨본 것은 '갤럭시 생태계'였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보편화하면서 전자기기 간 생태계 구축은 전보다 더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갤럭시 북 프로 360을 전달받자마자 기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작업부터 진행했다.
보안을 위한 몇 가지 절차를 거치자 두 기기가 연결됐고, 갤럭시 북에서 '사용자 휴대폰'이라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구동하자 연동된 스마트폰의 알림, 문자, 메시지, 사진, 앱 목록, 통화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삼성 갤럭시 북 프로 360 '사용자 휴대폰'을 활용해 스마트폰에 온 알림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장문기 기자]

여기에 더해 사용자 휴대폰 앱을 활용하면 스마트폰을 통하지 않아도 갤럭시 북을 사용해 문자메시지와 모바일 메신저의 확인·답장, 전화 수·발신이 가능하다. 갤럭시 북을 활용해 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평소와 다름없이 통화를 했다. 갤럭시 북 내장 스피커와 마이크를 활용해 1분 남짓 통화를 이어갔지만 통화 상대방은 평소와 다른 점을 눈치채지 못했다. 두 기기가 같은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는 경우 스마트폰 앱을 갤럭시 북에서 최대 5개까지 팝업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갤럭시 북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스마트폰을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삼성 노트, 갤러리 등의 앱은 기기 간 연동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스마트폰을 활용해 갤럭시 노트에 메모를 하는 경우, 그 메모를 갤럭시 북에서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외부기기와의 연결포트를 모두 C타입으로 통일한 것도 눈에 띈다. 갤럭시 북은 충전에도 C타입을 활용, C타입 충전기 하나 만으로 모든 갤럭시 기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했다. USB, HDMI 등을 C타입으로 호환할 수 있는 잭도 박스에 함께 들어있어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신제품에 △갤럭시 북 스마트 스위치 △퀵 쉐어 △블루투스 간편 연결 △세컨드 스크린 △퀵 서치 △스튜디오 모드 △스크린 레코더 & 스튜디오 플러스 △스마트싱스 등 갤럭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연동하는 '스마트싱스'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부터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까지 만드는 삼성전자가 제품 간 호환을 극대화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삼성 갤럭시 북 프로 360을 태블릿 모드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장문기 기자]
13.3인치, 11.5㎜, 1.04kg...휴대성 극대화 갤럭시 북 프로 360 제품은 13.3인치형과 15.6인치형 제품으로 구성됐다. 이 중 기자가 체험한 13.3인치형은 두께 11.5㎜, 무게 1.04kg에 불과해 휴대성이 도드라졌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출시된 갤럭시 북 프로 제품군은 초슬림 풀 메탈 디자인을 채택해 역대 갤럭시 북 시리즈 중 가장 얇고 가볍다.
갤럭시 북 프로 13.3인치형 제품의 경우 무게는 1kg이 채 안되는 868g이다.
갤럭시 북 프로360도 전작인 '갤럭시 북 플렉스2'보다 13.3인치형 기준 두께와 무게가 약 10%씩 줄었다.
박스에 함께 들어있는 파우치에 제품을 넣어보니 갤럭시 북, 마우스, 충전기, S펜 등을 무리 없이 한 번에 들고 이동할 수 있었다.
대각선 길이가 13.3인치(약 33.8㎝)에 불과해 성인 남성이 손에 들고 이동하는 경우 클러치백을 들고 다니는 정도의 느낌이었다.
갤럭시 북 프로 360을 사용하는 동안 파우치를 활용해 간편하게 이동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은 매우 편리했다.
갤럭시 북 프로 신제품은 전작보다 휴대성이 강화됐지만, 이와 더불어 삼성전자는 이 제품의 성능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언팩 행사 주제를 '가장 강력한 갤럭시가 온다'로 정한 것도 이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텔 최신 11세대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했고,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국내에 출시하는 노트북 중 처음으로 AMO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영화협회기준(DCI-P3) 120% 색 표현영역, 100만대1 명암비, 0.2ms 반응 속도 등을 구현했다. 삼성 갤럭시 북 프로 360. 색상은 미스틱 실버. [사진=삼성전자 제공]
장문기 기자 mkmk@ajunews.com

https://www.ajunews.com/view/20210509161349854

서울신문

화면 360도 회전... 태블릿 같은 노트북

IT_과학>모바일 | IT_과학>콘텐츠 2021-04-29 한재희

기사원문 ★스크랩 뉴스 듣기 가 가

삼성전자 '갤럭시북 프로' 2종 첫 언팩

아울러 디스플레이 탑재 손 터치 작동
S펜 있어 필기도 OK... 29일 사전 판매
'프로 360' 옵션 따라 값 181만~274만원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노트북 언팩'을 열고 역대 자사 제품 중 가장 얇고 가벼운 노트북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28일 밤 11시부터 1시간가량 온라인으로 진행된 '삼성 갤럭시 언팩(공개행사) 2021'을 통해 노트북 신제품인 '갤럭시북 프로' 시리즈 2종을 공개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IM)에서는 그동안 언팩에서 스마트폰이나 무선이어폰, 스마트워치 등을 주로 공개했는데 노트북을 대상으로 한 언팩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선 노트북 점유율 1위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순위권 밖인 삼성전자가 '비대면 트렌드' 덕에 크게 성장중인 노트북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 노트북 제품군을 강화해 '갤럭시 생태계'에 이용자들을 단단히 묶어두겠다는 전략이기도 하다.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은 이날 행사에 등장해 "'갤럭시북 프로' 시리즈는 초슬림·초경량 디자인, 강력한 성능, 갤럭시 기기와의 유기적인 연동을 통해 언제나 연결된 세상을 위한 진정한 모바일 컴퓨터"라고 소개했다.
'갤럭시북 프로' 13.3인치 모델은 역대 삼성 '갤럭시북' 시리즈 중 가장 얇은 두께(11.2㎜)와 가장 가벼운 무게(868g)를 지녔다. 노트북 화면이 360도 돌아가는 '갤럭시북 프로 360'도 13.3형 모델의 두께가 11.5㎜, 무게는 1.04kg로 줄여 휴대성을 극대화했다. 그러면서도 두 제품은 주요 항공우주 제조사에서 비행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알루미늄 5000'과 '6000' 시리즈가 사용돼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을 끌어올렸다.
두 제품 모두 손가락 터치(접촉)로 작동이 가능한 '아울레드 디스플레이'가 갤럭시북 최초로 적용됐다. '갤럭시북 프로 360'에는 휴대용 필기구인 'S펜'이 함께 제공되는데 두께와 길이가 기존 대비 각각 2.5배, 1.4배 커졌다. 360도로 화면을 젖혀 태블릿처럼 형태를 만든 뒤 필기할 수 있다.
'갤럭시북 프로 360'은 세부 옵션에 따라 181만~274만원, '갤럭시북 프로'는 130만~251만원에 출시됐다. 국내에서는 29일 사전 판매를 시작해 다음달 14일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29021001

기사 검색

동아일보

360도 뱅뱅... S펜 호환 '갤럭시 북프로'

IT_과학>모바일 | IT_과학>콘텐츠 2021-04-29 | 홍석호

기사원문 ★스크랩 뉴스 듣기 가 가

삼성전자, 노트북 언팩 첫 행사 11mm 두께, 868g 초경량 휴대성 커 MS와 협업, 스마트폰과 연동 가능

삼성전자가 첫 노트북 언팩(공개행사)을 열고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는 '모바일 네이티브'를 겨냥해 11mm의 얇고 가벼운 디자인을 적용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무선이어폰 등과 매끄러운 연동도 강점이다.
삼성전자는 28일 오후 11시 온라인 언팩을 열고 '갤럭시 북 프로'와 '갤럭시 북 프로 360'을 공개했다. 갤럭시 북 프로 360은 360도 회전이 가능한 노트북으로 완전히 접어서 태블릿처럼 사용하거나 270도 정도 접어 텐트처럼 세운 뒤 영상을 감상하는 것이 가능한 제품이다.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상징인 'S펜'을 호환 사용할 수 있다.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는 초슬림 초경량 디자인, 강력한 성능, 갤럭시 기기와의 유기적 연동을 통해 언제나 연결된 세상을 위한 모바일 컴퓨터"라고 설명했다.
갤럭시 북 프로의 가장 큰 특징은 모바일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11mm의 두께는 가방이나 파우치 등에 휴대하기 편하다. 갤럭시 북 프로 13.3인치 모델은 868g의 무게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북 시리즈 가운데 가장 얇고 가벼운 제품이다.
또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업해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과 매끄러운 연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싱글 테이크' '슈퍼 슬로 모션' 등 특수효과를 적용한 사진을 자동 동기화해 갤럭시 북 프로의 갤러리 애플리케이션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 등이다.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와의 연동도 빨라졌고 스마트폰과 갤럭시 북 프로를 번갈아가며 연결하는 '쉬운 블루투스 연결' 기능도 제공한다.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에 사용해 온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디스플레이를 갤럭시 북 시리즈 최초로 탑재했다. 갤럭시 북 프로 360에는 슈퍼 AMO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는 최신 인텔 11세대 코어 프로세서,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 등을 탑재하는 등 고성능 하드웨어도 갖췄다.
삼성전자가 노트북만을 공개하는 단독 공개행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갤럭시 언팩은 주로 '갤럭시 S' '갤럭시 노트' 등 주력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공개할 때 열려 왔다.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노트북 언팩을 진행한 배경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커진 PC 수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며 성장이 정체된 듯 여겨졌던 PC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맞물려 확산된 원격수업,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 수요가 대폭 늘었다. 시장조사기관 카날리스에 따르면 데스크톱, 노트북 등을 포함한 올해 1분기(1~3월) PC 판매량은 약 8268만 대로 지난해 1분기 대비 54.6%나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증가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428/106665383/1

디지털타임스

1분기 가전 트렌드, '홈루덴스족'이 주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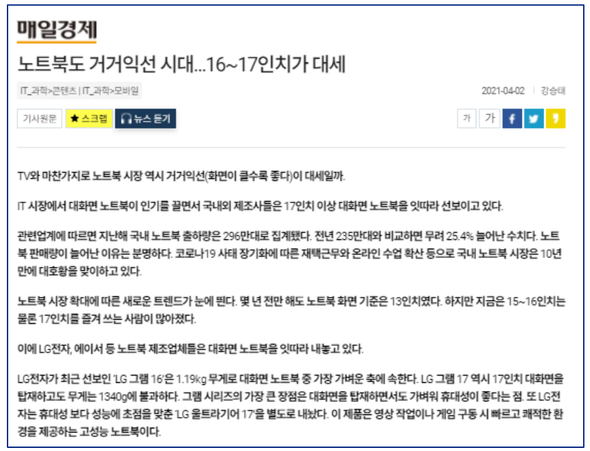
경제>유통 | 경제>서비스_쇼핑 | IT_과학>모바일 2021-04-28 | 김아름

기사원문 ★스크랩 뉴스 듣기 가 가

[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전자랜드는 2021년 1분기 가전 매출을 조사한 결과 '홈루덴스족'이 트렌드를 주도했다고 28일 밝혔다.
홈루덴스족은 집을 뜻하는 '홈'과 놀이를 뜻하는 '루덴스'를 합친 말로, 멀리 나가지 않고 자신의 주거 공간 안에서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이들을 칭하는 신조어다.
전자랜드가 올해 1분기 가전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대비 태블릿 PC는 318%, 전열기기는 206%, 전기오븐은 169%, 온풍기는 148%, 난로는 138%, 안마의자는 82%, 뷰티케어기기와 건강기기는 71%, 식기세척기는 47%, 전기레인지는 43%, 의류관리기는 40%, 노트북은 37%, 드럼세탁기는 31%, TV는 24% 성장했다.
1분기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역대급 한파까지 겹치면서 고객들이 집에서 아늑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가전을 많이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특히 집에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 태블릿 PC·노트북·TV 등 '홈 엔터테인먼트' 가전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전자랜드가 최근 판매를 재개한 게임기와 소프트웨어 역시 1분기 매출 1·2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안마의자·뷰티케어기기·건강기기 등 몸 관리와 휴식을 돕는 가전과 전기오븐·전기레인지·식기세척기 등 집에서 요리를 즐기는 고객들을 위한 가전도 판매량이 늘었다. 역대급 한파로 전열기기·온풍기·난로 등 대표적인 겨울 난방가전들도 호조를 보였다.
전자랜드는 2분기에도 실내 생활을 돕는 가전의 인기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올 여름 절정의 더위가 예고된 만큼, 지난해 긴 장마로 판매가 부진했던 에어컨과 선풍기 등 여름 계절 가전의 판매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전자랜드 관계자는 "2분기부터는 집에서 많은 것을 해결하는 고객들의 니즈에 발맞춘 신가전들이 다양하게 출시된다"며 "전자랜드도 고객들이 많이 찾는 가전을 손쉽게 비교 체험할 수 있게 매장을 꾸밀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42802109932060010&ref=jeadan

기사 검색



매일경제

노트북도 거커익선 시대...16~17인치가 대세

IT_과학>콘텐츠 | IT_과학>모바일 2021-04-02 | 강승태

기사원문 ★스크랩 뉴스 듣기 가 가

TV와 마찬가지로 노트북 시장 역시 거거익선(화면이 클수록 좋다)이 대세일까.

IT 시장에서 대화면 노트북이 인기를 끌면서 국내외 제조사들은 17인치 이상 대화면 노트북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노트북 출하량은 296만대로 집계됐다. 전년 235만대와 비교하면 무려 25.4% 늘어난 수치다. 노트북 판매량이 늘어난 이유는 분명하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확산 등으로 국내 노트북 시장은 10년 만에 대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노트북 시장 확대에 따른 새로운 트렌드가 눈에 띈다. 몇 년 전만 해도 노트북 화면 기준은 13인치였다. 하지만 지금은 15~16인치는 물론 17인치를 즐겨 쓰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에 LG전자, 에이서 등 노트북 제조업체들은 대화면 노트북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LG전자가 최근 선보인 'LG 그램 16'은 1.19kg 무게로 대화면 노트북 중 가장 가벼운 축에 속한다. LG 그램 17 역시 17인치 대화면을 탑재하고도 무게는 1340g에 불과하다. 그램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은 대화면을 탑재하면서도 가벼워 휴대성이 좋다는 점. 또 LG전자는 휴대성 보다 성능에 초점을 맞춘 'LG 울트라기어 17'을 별도로 내놨다. 이 제품은 영상 작업이나 게임 구동 시 빠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고성능 노트북이다.

TV와 마찬가지로 노트북 시장 역시 거거익선(화면이 클수록 좋다)이 대세일까.
IT 시장에서 대화면 노트북이 인기를 끌면서 국내외 제조사들은 17인치 이상 대화면 노트북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노트북 출하량은 296만대로 집계됐다. 전년 235만대와 비교하면 무려 25.4% 늘어난 수치다. 노트북 판매량이 늘어난 이유는 분명하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확산 등으로 국내 노트북 시장은 10년 만에 대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노트북 시장 확대에 따른 새로운 트렌드가 눈에 띈다. 몇 년 전만 해도 노트북 화면 기준은 13인치였다. 하지만 지금은 15~16인치는 물론 17인치를 즐겨 쓰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에 LG전자, 에이서 등 노트북 제조업체들은 대화면 노트북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LG전자가 최근 선보인 'LG 그램 16'은 1.19kg 무게로 대화면 노트북 중 가장 가벼운 축에 속한다. LG 그램 17 역시 17인치 대화면을 탑재하고도 무게는 1340g에 불과하다. 그램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은 대화면을 탑재하면서도 가벼워 휴대성이 좋다는 점. 또 LG전자는 휴대성 보다 성능에 초점을 맞춘 'LG 울트라기어 17'을 별도로 내놨다. 이 제품은 영상 작업이나 게임 구동 시 빠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고성능 노트북이다.
에이서는 고사양의 17.3인치 노트북을 선보였으며 에이수스 또한 17인치 프리미엄 게이밍 노트북을 출시했다.
대화면 노트북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기술이 좋아지면서 대화면을 탑재해도 무게가 크게 나가지 않는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각 가정에서 사용하려면 13~15인치 노트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 역시 대화면 노트북이 잘나가는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화면이 큰 디스플레이는 콘텐츠를 감상할 때 강점이 있다. 다양한 작업을 할 때도 큰 화면이 유리하다"며 "가벼우면서도 화면이 큰 그램 17 시리즈 이후 국내 대화면 노트북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승태 기자]

https://news.mk.co.kr/v2/economy/view.php?year=2021&no=317309

중앙일보

[라이프 트렌드&] 얇고 가벼운 이 노트북, 성능은 데스크톱 부럽잖네

IT_과학>모바일 | 경제>반도체 | IT_과학>인터넷_SNS 2021-03-22 | 송덕순

기사원문 ★스크랩 뉴스 듣기 가 가

두께 22mm, 무게 2.2kg으로 가분 그래픽카드 등 고성능으로 탑재 17.3인치 대화면 제품도 세분화

MSI가 무게는 가볍지만, 데스크톱 못지않게 쾌적한 작업환경을 구현하는 크리에이터용 노트북 'MSI 크리에이터' 시리즈를 선보였다. MSI 크리에이터 시리즈는 사진작가, 영화 제작자, 그래픽 디자이너 등 전문가를 만족시키는 성능을 지녔다.
크리에이터 맞춤 솔루션 '크리에이터 센터'
멀티코어가 특징인 인텔 10세대 코어 프로세서와 함께 엔비디아 지포스 그래픽카드, 광시야각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것이 특징이다. 크리에이터를 위한 맞춤 솔루션 '크리에이터 센터'도 지원된다. 17.3인치 대화면 제품군은 크리에이터 17M A10SD(A10SE), 크리에이터 17 A10SD(A10SE), 크리에이터 17 A10SFS HDR WIN10(A10SD·A10SE)으로 나뉜다.
크리에이터 17M A10SD(A10SE)와 크리에이터 17 A10SD(A10SE)는 비슷한 사양을 갖췄다, 하지만 디자인·확장성·무게 등에서 차이가 난다. 크리에이터 17 A10SFS HDR WIN10(A10SD·A10SE)은 고성능 미니 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그래픽 작업에 적합하다.
크리에이터 17M A10SD(A10SE)는 고성능 CPU와 그래픽카드로 디자이너 및 영상 편집자에게 적합하다. 인텔 10세대 코어 i7-10750H 프로세서(6코어 12스레드, 12MB 캐시, 부스트클럭 5.0GHz)를 탑재했다. 그래픽은 엔비디아 지포스 GTX 1660 Ti Max-Q(A10SD) 및 RTX 2060(A10SE)이 탑재돼 영상 편집 등 고사양 그래픽 작업에 알맞다.
노트북은 두께 22mm, 무게 2.2kg으로 성능에 비해 얇고 가볍다. 알루미늄 몸체에 실버 컬러와 헤어라인 마감을 갖춰 세련된 스타일을 지녔다. 화면 개방 시 하단부가 들리는 드롭다운 힌지 설계로 냉각 성능도 뛰어나다.
디스플레이는 IPS 타입 광시야각 FHD 144Hz 디스플레이다. 5mm 울트라 씬 베젤로 집중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다. 컬러 솔루션 업체인 Portrait Displays와 공동 개발한 트루컬러 기술로 정확한 색감을 보여준다. 배터리는 최대 6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3배 빠른 Wi-Fi 6도 지원한다.
확장성이 강화된 작업용 시스템은 크리에이터 17 A10SD(A10SE)가 적합하다. 크리에이터 17M A10SD·A10SE보다 I/O 포트(Micro SD카드 슬롯, 썬더볼트3 단자)가 늘어났다. 두께는 20.25mm에 무게는 2.4kg이다. 슬림하고 고급스러운 실버 디자인을 갖췄다.
울트라 씬 베젤, 미니 LED 디스플레이 탑재
프리미엄 제품군에는 크리에이터 17 A10SFS HDR WIN10(A10SD·A10SE)이 해당한다. 고성능 4K HDR 미니 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240손 로컬 디밍을 지원하며 명암비는 10만대 1에 최대 밝기는 1180nits에 달한다. 색 영역은 DCI-P3 100%다.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 기술인 칼맨 인증을 획득했고, DeltaE 값도 2 미만으로 색정확도가 아주 높다. 디스플레이HDR 1000 기술도 지원해 색 표현력이 뛰어나다.
성능은 인텔 10세대 코어 i7-10875H, 코어 i7-10750H 프로세서를 탑재했다. 그래픽은 엔비디아 지포스 RTX 2070 SUPER Max-Q(A10SFS), GTX 1660 Ti Max-Q(A10SD), RTX 2060(A10SE)을 적용했다. 디자인은 메탈 섀시에 실버 다이아몬드 커팅 라인과 샌드블라스트 마감을 적용해 고급스럽게 다듬었다. 두께는 20.25mm에 무게는 2.5kg이다. 울트라 씬 베젤이 적용돼 17.3인치지만 크기는 15.6인치 수준이다.
15.6인치 제품군은 크리에이터 15M A10SD-i7(15M A10SE-i7)과 크리에이터 15 A10UET로 나뉜다. 전자는 크리에이터 17M의 소형화 버전이며, 후자는 멀티 터치 스크린과 RTX 3060이 탑재된 것이 특징이다.
크리에이터 15M A10SD-i7(15M A10SE-i7)은 인텔 10세대 코어 i7-10750H 프로세서, 엔비디아 지포스 GTX 1660 Ti Max-Q(A10SD-i7) 및 RTX 2060(A10SE-i7)이 탑재됐다. 두께 21.7mm, 무게 1.86kg으로 15.6인치답게 가볍다. 알루미늄 바디에 실버 컬러와 헤어라인 마감 처리됐다. 디스플레이는 IPS 타입 광시야각 FHD 144Hz며 MSI 트루컬러 기술로 정확한 색감을 확인할 수 있다. 최대 6시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를 갖췄고 Wi-Fi 6을 지원한다.
멀티 터치스크린으로 직관적인 사용
크리에이터 15 A10UET는 화면 터치로 빠르고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한 멀티 터치스크린을 갖췄다. 인텔 10세대 코어 i7-10870H 및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60 그래픽을 탑재했다. 세계 최대 수준의 용량인 99.9WHr 배터리를 적용해 야외에서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두께는 19.8mm로 얇고 무게는 2.1kg에 불과하다. 쿨리부스트 트리니티 플러스를 탑재해 고성능이 필요한 작업에서도 성능을 지속해서 유지해 준다.
중앙일보디자인=송덕순 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4017137

기사 검색

아주경제

3월 신학기 맞아 챙겨두면 손해 안 볼 '노트북 무엇'?

2021-02-19

중·고·대학생 84.5% "입학·졸업 선물로 IT 제품 원해" 가볍고 성능 좋은 노트북 대세…'투인원' 제품도 인기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을 앞둔 시즌에는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자제품 브랜드들이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에 나서고 있다.
신제품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려는 소비자 심리가 강하고, 신입생들을 위한 선물 수요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 고객은 빠르게 변화하는 IT 트렌드에 민감해 전자업계의 '새학기 마케팅'은 3월에 그야말로 불이 붙는다.
시장조사기관 엠브레인이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입학·졸업 시즌 선물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 84.5% 응답자가 IT 제품을 선물로 받고 싶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이 최근 가장 많이 사용하는 IT 제품군은 휴대폰(67%), 노트북(21.5%), 태블릿(9.5%) 등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사용률이 압도적으로 높긴 하지만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나 조별과제 등을 수행할 때 노트북이 필수인 까닭에 노트북은 단연 학생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전자제품 중 하나다.
최근에는 노트북과 태블릿을 합친 투인원(2-in-1)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상황에 따라 노트북과 태블릿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투인원 제품의 장점으로 손꼽힌다.
삼성전자의 13.3인치 투인원 노트북 '갤럭시 북 플렉스2'는 인텔 11세대 프로세서와 그래픽카드를 탑재한 고성능 제품이다.
터치스크린과 내장형 S펜을 사용하면 효과적인 태블릿 활용이 가능하고 1.26kg에 불과한 무게로 휴대성을 극대화했다.
삼성전자의 투인원 노트북 '갤럭시 북 플렉스2'.[사진=삼성전자 제공]
LG전자의 2021년형 'LG 그램' 라인업에는 16인치 모델이 새롭게 포함됐다.
초경량·대화면이 강조된 해당 모델은 16인치 화면에도 1.19kg의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며 '세계 최경량 16인치형 노트북'에 등극했다.
'LG 그램 16'은 미국 국방부 신뢰성 테스트의 7개 항목(충격, 먼지, 고온, 저온, 진동, 염무, 저압)을 통과해 내구성도 탁월하다.
이 제품 역시 인텔 11세대 프로세서와 그래픽카드, 15.6인치형 노트북 디스플레이보다 화질이 선명하고 깨끗한 WQXGA(2560×1600) 고해상도 IPS 디스플레이 등 고성능 부품을 탑재했다. LG전자의 노트북 2021년형 '그램'.[사진=LG전자 제공]
에이수스(ASUS)가 15일 출시한 14인치 노트북 '젠북 듀오 14'는 듀얼 스크린으로 활용할 수 있는 틸트형 스크린패드가 플러스가 탑재된 게 특징이다.
최신 인텔 11세대 프로세서를 탑재해 성능을, 1.6kg의 무게와 16.9mm 두께의 디자인을 통해 휴대성을 동시에 갖췄다.
낮은 블루라이트 모드, 깜빡임 방지 기술 등을 탑재해 '티유브이 라인란드(TÜV Rheinland)'에서 시력 보호 인증도 받았다. 에이수스(ASUS) 노트북 '젠북 듀오 14'.[사진=ASUS 제공]
장문기 기자 mkmk@ajunews.com

https://www.ajunews.com/view/20210219094305604

한국경제

LG, 세계 최경량 노트북으로 日시장 공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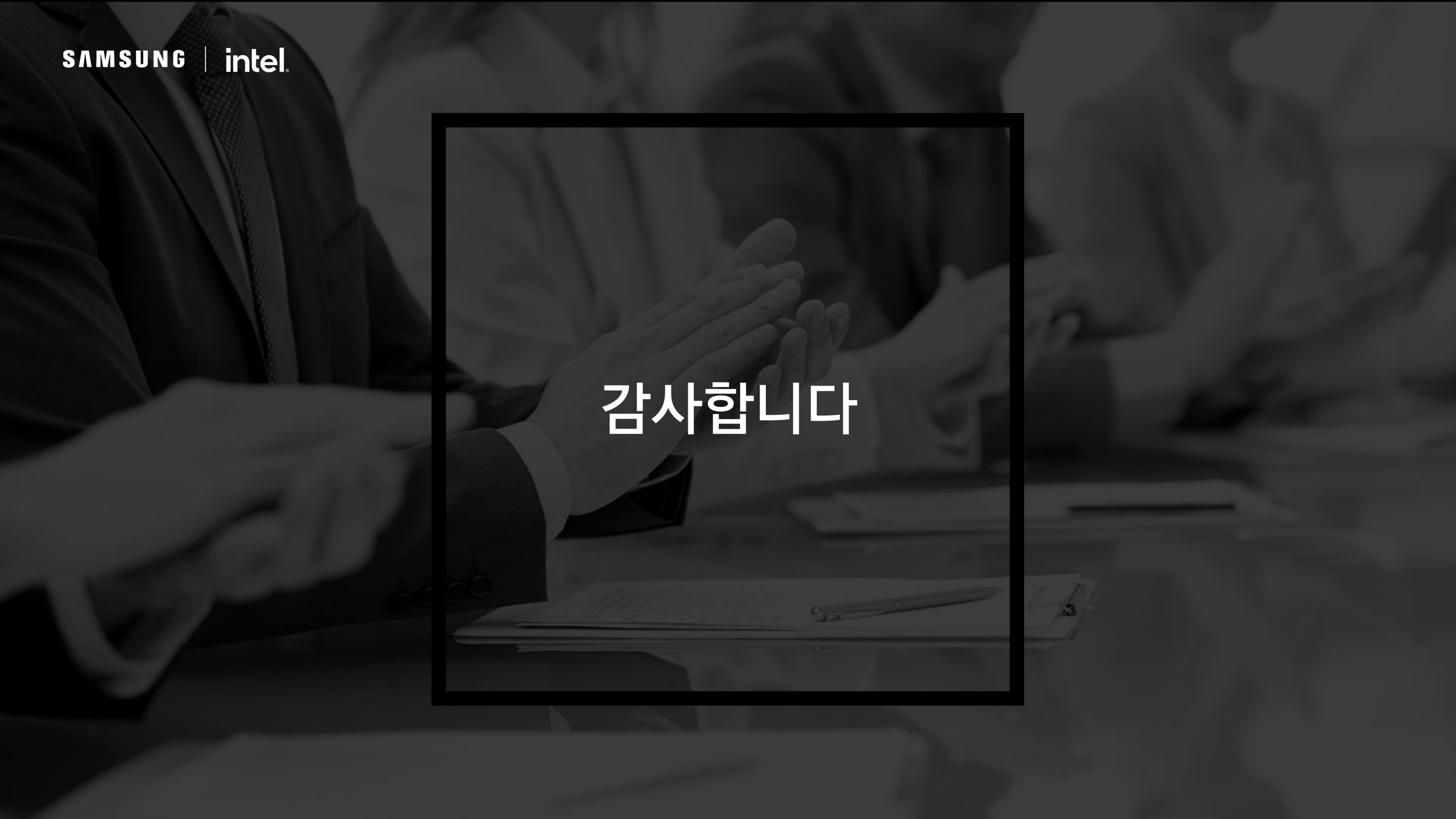
2021-02-14 | 이승우(leeswoo@hankyung.com);

LG전자가 신형 노트북 '2021년형 LG 그램'으로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전자는 이달 하순 일본 시장에 2021년형 LG 그램을 출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LG전자가 신형 노트북 '2021년형 LG 그램'으로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전자는 이달 하순 일본 시장에 2021년형 LG 그램을 출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에 일본에 선보이는 LG 그램(사진)은 14(인치)형, 16형, 17형 등 세 종류다. 가격은 15만6000~24만1000엔(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인텔의 최신 11세대 타이거레이크 프로세서를 장착했고 차세대 노트북 규격인 '인텔 이보(EVO) 플랫폼' 인증을 획득했다. LG 그램 시리즈에 처음으로 추가된 16형 모델은 무게가 1190g으로 세계 기네스협회로부터 '세계 최경량 16형 노트북' 인증을 받았다.
화면부와 키보드가 연결되는 '힌지' 노출을 최소화해 화면 몰입감을 높였다. 베젤(화면 테두리)을 최소화해 기존 LG전자의 15형 노트북보다 크기가 작다. 가벼운 무게에도 80와트시(Wh)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LG전자는 2016년부터 그램 시리즈를 일본 시장에 꾸준히 내놓고 있다. 자국 제품 선호도가 높은 일본 시장 특성상 아직까지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일본 노트북 시장은 연간 800만 대 수준으로 한국의 2.5배 규모"라며 "일본은 대중교통 이용자 비율이 높아 대화면이면서도 가벼운 그램 시리즈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초에는 AMD의 라이젠 프로세서를 내장한 13형 보급형 노트북인 LG 울트라 PC를 출시했다.
일본 시장에 특화한 기능도 갖췄다. 아마존의 음성 인공지능(AI) '알렉사'를 탑재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일본은 아마존 이용자 비율이 높아 노트북에 알렉사를 넣는 게 최근 트렌드"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https://news.joins.com/article/24017137


SAMSUNG
intel
감사합니다